



책 읽 기 와 글 쓰 기

리딩엠 송도

Magazine

[리딩엠 송도교육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64
아네니움플라자 305호
www.readingm.com

NO. 4
2018. 겨울호

상/담/문/의 Tel. 032-833-3331



ChosunMedia

조선일보, CS M&E,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권위 3년 연속 수상!

CONTENTS

송도점 안내 송도점 센터 소개	2p	인정받는 리딩엠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 3년 연속수상	6p	중등 섹션 재원생 글쓰기 결과물	28p
리딩엠 홍보 과학이든 인문이든 책읽기와 글쓰기로 편기를 나누라	3p	커리큘럼 18년 12월 ~ 19년 2월 커리큘럼	7p	교사기고 "너무 바쁜 우리 아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31p
프로그램 안내 리딩엠 교육 관련	4p	초등 섹션 재원생 글쓰기 결과물	8p		
교육안내 18년 12월~19년 2월 수업 안내	5p	수상자 현황 리딩엠 학생 수상자 내역 소개	27p		

[과학이든 인문이든
책읽기와 글쓰기로 판가름 나더라]

리딩엠 송도교육센터

아데니움 프라자
3층



중등부 프로그램

〈책읽기와 글쓰기 프로그램 + 주제별 신문칼럼〉

책읽기	독서 (매주 수업도서 1권 + 교사추천도서 및 학생선택 도서 추가가능)	
조선·중앙·동아·한국·한겨레·경향 등의 칼럼을 읽고 학문어휘와 시사어휘와 배경지식 극대화		
수업진행	칼럼 60분	문맥속 어휘정리와 확장적 적용 중심문장·주제문 찾기와 요약하기 논지와 논거 찾아내며 논증 익히기 글쓴이 논지의 핵심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비판해보기
	독서 90분	과학/인문/사회/문화/예술/역사/IT기술 정독·다양독과 진학연계독→사실적이해→추론적/비판적이해 →글쓰기→학교생활기록부 등지
특징/효과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매주 1권 읽고 배경지식 극대화와 글쓰기 완성 글쓰기를 통해 이뤄지는 학교수행평가 해결능력 배양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통해 최고의 독해능력 완성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관리, 진학과 진로연계 차별화된 독서활동 관리 →고등진학 면접대비로 연결	
보조교재	리딩엠 책글 워크북 / 주제별 신문칼럼 (신문판형 그대로 인쇄/ 출력 사용)	



초등부 프로그램

〈책읽기와 글쓰기 프로그램〉

책읽기	독서 (매주 수업도서 1권) + 교사추천도서 1권 + 학생선택도서 1권~2권
수업진행	1주 1회 2시간 (모둠) 집에서 책을 읽고 학원에서 모둠 수업을 통해 어휘력과 배경지식, 말하기, 글쓰기, 청각 진행 <흥미유발 → 정독 → 내용이해 → 어휘활동 → 사고력 → 비판적, 창의적 표현 → 글쓰기 → 첨삭지도> 덤! 미리내 국어
특징/효과	정독습관을 만들고 독서 후 활동 (어휘/내용/토론/글쓰기)을 체계적으로 진행 어휘력과 배경지식의 극대화 그리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 글쓰기 능력 완성 학교 수행활동·서술형과 논술형 등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독서이력관리 편독문제를 해결하고 다양독과 다량독 실현
보조교재	리딩엠 책글 워크북 / 초등학생을 위한 미리내 국어



리딩엠 특장점

- 체계적 글쓰기
- 미리내 국어 (초등학생)
- 목적수업 시스템
- 리딩엠 RAMS 솔루션
- 학생부 독서활동관리
- 리딩엠 매거진
- 필독도서 대출시스템
- 국어문법 완벽정리
- 주제별 신문칼럼 수업
-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 독서이력진단과 관리
- 학교 수행활동과 평가
- 추천도서와 선택도서
- 비문학 독해 완성



책 읽 기 와 글 쓰 기
리딩엠

송 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64 아데니움플라자 305호
NAVER 송도 리딩엠 www.readingm.com
전/화/상/담 032.833.3331 직통전화 010.5243-4634

과학이든 인문이든 책읽기와 글쓰기로 판가름 나더라

정독, 지속독, 다양독, 잠재독, 책읽기와 글쓰기는
전문성 있는 리딩엠에서 성공하세요.

리딩엠의
독보적인
전문적인 힘

- ▶ 필독도서 대출 시스템(초중고 필독도서 12,000권 보유) ▶책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매주 수업도서 1권 + 담당교사 추천도서 1권 + 본인 선택도서 2권 대출 가능
- ▶ 리딩엠 특허등록 독서이력진단과 교사추천 도서 프로그램 (편독방지와 잠재독 실현)
- ▶ 독서이력진단과 관리(학교생활기록부)(교육청 독서교육지원시스템)
- ▶ 창의적, 차별화된 글쓰기 완성, 학교 수행평가 및 교내외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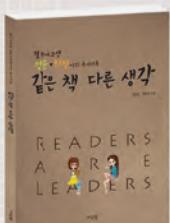
이 책은 절친 어교생 두 명이 같은 주제의 글을 놓고 기기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갖고 서 있고, 생각하고, 또 자신과 노끈 걸을 술집리에 쓴 글들을 모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세상의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는 기회를 즐길게 되길 바랍니다.
상임권 | 로드 디딤보마티크 한국판 발행인 (동국대 교수)

이 책은 인문학적인 가치가 높아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과 주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 나름의 성찰과 생각이 있고, 이 생각들에 관한 친구들의 소통과 나눔이 있습니다.

승정호 | 배암고등학교 국어교사

포강은 절친 어교생 두 명이 같은 주제의 글을 놓고 기기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갖고 서 있고, 생각하고, 또 자신과 노끈 걸을 술집리에 쓴 글들을 모았습니다. 이 책은 인문학적인 가치가 높아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과 주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 나름의 성찰과 생각이 있고, 이 생각들에 관한 친구들의 소통과 나눔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2023년 10월 15일 보도



책읽기와 글쓰기로 전문화된 리딩엠의 모든 노하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구 분	내 용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동, 도곡, 대치, 서초, 대전둔산, 인천송도, 잠실, 위례, 청라 신도시, 남양주 덕소, 내포 신도시, 검단 원당, 청주 상당, 안동 옥동, 영종 중산, 송파 신천에서 운영중 ■ 책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최상의 학습능력 완성 ■ 2016년~2018년 3년 연속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교육기업 대상' 수상 ■ 독서이력진단과 분석방법(특허획득) ■ 도서출판 <초등시기 나는 이렇게 책을 읽었다> 서울대생 13인의 초등시기 독서이력 (YES 24 주간판매 1위도서) ■ 용인외고, 민사고, 한성과학고 등 초등학년 때부터 5년 이상 다닌 재원생의 고등진학 실적
M플러스 (초)1주1회 2시간/월수업도서4권,5권 (중)1주1회 2.5시간/월수업도서4권,5권 *주제별 신문칼럼수업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로 책을 읽는 습관을 갖추도록 지도 ■ 리딩엠에서 수업도서 내용과 토론·글쓰기·첨삭 진행 ■ 1교시에는 <책글활동지 워크북>으로 수업 진행 ■ 2교시에는 생각나누기 또는 토론과 글쓰기, 첨삭 진행 ■ 수업도서·추천도서·선택도서 등 주 4권이내 대출 ■ 학교 수행활동, 서술논술형 문제해결 능력 갖추도록 지도 ■ 매주 글쓰기와 첨삭진행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극대화 ■ 읽은 책은 시계열화해 독서이력분석관리와 피드백 진행
목적수업 프로그램_별도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대회·수행활동·교외대회 등 요청수업 진행
독서이력진단과 분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주제분류에 따른 독서이력관리 ■ 문학·비문학, 과학·인문·사회·문화·예술체육으로 주제분류
RAMS 시스템 업로드(초중) 학교생활기록부 등재(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도서에 대한 글쓰기 결과물(독서감상문 등) 유지관리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1년 2차례 등재될 수 있도록 지도
리딩엠 RAMS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읽은 책, 대출도서, 평가결과, 활동결과, 진단결과
리딩엠 매거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 등 리딩엠 수업 결과물 등 수록 ■ 학생별로 번갈아가며 원고 수록
<초등학생을 위한 미리내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의 기본문장과 표현능력 등 강화교재 ■ 교과서 수록 어휘, 문장, 어법, 띠어쓰기, 맞춤법, 관용어(속담, 격언), 문장, 표현 지도

리딩엠 공지사항

- ▶ 리딩엠은 방학휴원은 없으며, 설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 성탄절만 휴원합니다.
- ▶ 리딩엠은 1주 1회 수업이며 지속독을 위해 매주 필독도서 대출이 이뤄집니다.
- ▶ 방학중에는 오전 10시부터 개방되므로 학생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 ▶ 가정의 휴가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때, 휴가일정 전후로 보충이 진행됩니다.
- ▶ 대출도서는 꼭 읽은 후 반납 부탁드리며, 신규도서는 매월 안내판에 공지됩니다.
- ▶ 원비수납은 선납으로 매월 23일부터~말일까지 익월분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 스마트폰으로 RAMS를 바탕화면에 설치해 학생의 독서상황, 수업상황 등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 2019년 2월 수업 안내

교육일정

12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26	27	28	29	30	1	2
2주	3	4	5	6	7	8	9
3주	10	11	12	13	14	15	16
4주	17	18	19	20	21	22	23
5주	24	25	26	27	28	29	30

1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31	1	2	3	4	5	6
2주	7	8	9	10	11	12	13
3주	14	15	16	17	18	19	20
4주	21	22	23	24	25	26	27
5주	28	29	30	31			

2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1	2	3
2주	4	5	6	7	8	9	10
3주	11	12	13	14	15	16	17
4주	18	19	20	21	22	23	24
5주	25	26	27	28			

○ 스마트 RAMS 솔루션

전문화된 솔루션을 자체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학생의 독서활동, 글쓰기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내 손안에 나만의 독서 길잡이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쉽게 확인한다

■ 사용방법

1. 스마트폰용 웹스 링크 rams.readinggm.com 을 클릭해주세요.
2. 보내드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주세요.
3. 스마트폰에서 <홈화면추가> 또는 <바로가기 추가>를 선택해 스마트폰의 홈화면(바탕화면)에 보이게 해 주후 클릭만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マイページ ▲메뉴 ▲서부 전면판

2018년 조선일보 CS M&E 주최 <소비자가 선정한 교육기업대상_초중고 독서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 - 초중고 독서활동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



조선일보 제30190호

초등 학습

2018년 2월 5일 월요일

D5

교육 칼럼 | 책 읽기의 중요성

생각의 폭 넓히는 독서… 교과 성적·대입 결과 좌우



'수행평가' 비중 높아지면서
읽기·글쓰기 능력 중요해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저서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치명적인 종(種)"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피엔스'는 그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세상의 자배자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에 대한 통찰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 생활, 문화, 과학기술 등의 변화를 주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 결국 인간의 '생각'일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읽고 쓰며 생각하는 일이다. 책을 읽으면서 감성을 키우고 소통하며,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 교육은 책 읽고 글을 쓰며 생각을 다양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 먼저 책 읽기의 경우, 학생이 지적 호기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여전히 '학습'의 방편으로만 접근한다. 글쓰기만 보더라도 초등학생 때부터 자연스러운 생각의 표현 활동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활동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한계가 있다. 중·고등학생도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분석적 글이든, 자유로운 생각을 적는 글이든 글쓰기 자체를 매우 어려워한다. '자기소개서'마

저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책 읽기와 글쓰기가 학생의 어휘력뿐만 아니라 배경지식을 탄탄하게 함과 동시에 사고력·논리력·비판력·창의력·융합 능력·통찰력 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보면, 최근 교육제도와 교육 현장 변화 속에서 책 읽기와 글쓰기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서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8학년도 대입 전형은 이미 우리나라로 입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이끌 기폭제로 작용했다.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독서 활동 중심의 면접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능에서는 국어의 독서 파트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독서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도입 등으로 공교육 현장에서도 독서 활동이 다양한 학습 도구 또는 텐서 도구로 활용되는 등 큰 변화가 일고 있다. 2020년까지 초·중·고교 전 학년에 도입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한글과 독서교육 강화 ▲진로·적성 및 출신교육 ▲자유학기제 운영 학습 ▲소프트웨어 교육 ▲문·이과의 통합 등이 주요 특징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 제도를 보더라도 책 읽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급방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미 절대평가로 전환한 영어·국사 외에 다른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 가능성도 살아 있다. 또한 외·국 제고·자사고 폐지와 공교육 강화 움직임

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 예비 중 3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에서 전영역 절대평가제가 실시되면, 학생부의 중요성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대학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업 능력, 성실성, 글쓰기 능력 등을 갖춘 학종형 인재를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 단위로 들어가 학생 평가 방법을 보면 더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만 잘 보면 내신은 좋아진다'는 고정관념은 이미 바뀌었다. 최근 중·고교 내신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전체 내신 중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 비중이 60~70%, 수행평가 비중이 30~40% 정도를 차지한다. 내신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수행평가에서 글쓰기 능력은 필수다. 수업에서 하는 발표, 토론 참여, 과제 수행, 학습 참여, 글쓰기 결과물 제출 등을 통해 수행평가 성적을 받기 때문이다.

'공부하다가 남는 시간에 독서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평소 다양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생각을 갖기 어려워서다. 더구나 이제는 과학·경제·문화 등 교과서 밖에서 수능 지문으로 출제되고, 그 문제의 변별력이 커 읽기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독서가 특목·자사고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서가 교과 성적과 대입 결과를 좌우하는 '필수 과목'으로 대변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종일 리딩엠 대표이사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2월	1학년 명화를 읽어 주는 어린이 미술관 (로지 디킨스/ 시공주니어)	고릴라 (엔서니 브라운/ 비룡소)	피터의 의사 (에즈러 짱 키즈/ 시공주니어)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스벤 누르드크비스트/ 풀빛)
	2학년 우리반 스파이 (김대조/ 주니어김영사)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풀빛)	엄마 돌보기 (제클린 월슨/ 시공주니어)	꼬마 철학자 우후 (간지와 도시코/ 비룡소)
	3학년 아라비안나이트 (리처드 프랜시스 베턴/ 두산동아)	동물회의 (에리히 캐스트너/ 시공주니어)	내 친구가 마녀래요 (E.L 코니스버그/ 문학과지성사)	투명인간이 된 스탠리 (제프 브라운/ 시공주니어)
	4학년 에밀과 담장들 (에리히 캐스트너/ 시공주니어)	보물섬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 삼성출판사)	내 친구 윈더시 (케이트 디카밀로/ 시공주니어)	어린왕자 (생백쥐페리/ 문예출판사)
	5학년 크리스마스캐럴 (찰스 디킨스/ 비룡소)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 (루이스 캐럴/ 시공주니어)	클로디아의 비밀 (E.L 코니스버그/ 비룡소)	오즈의 마법사 (라이먼 프랭크 바움/ 시공주니어)
	6학년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시공주니어)	해피 버스데이 (아오키 가즈오/ 문학세계사)	로빈슨 크루소 (다니엘 디포/ 시공주니어)	아름다운 풍경화에 뭐가 숨어 있을까 (이주현/ 다섯수레)
	중1학년 기말시험 대비/ 토크전 (전국여교사모임/ 휴머니스트)	기말시험대비/ 목걸이 (보파상/ 소담출판사)	나미야 접하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암腼/ 살림출판사)
	중2학년 기말시험 대비 (리딩앱/ 리딩앱)	기말시험 대비 (리딩앱/ 리딩앱)	동물농장 (조지오웰/ 민음사)	변신 (프란츠 카프카/ 민음사)
	중3학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고등소설(상) (박종오, 오세호/ 창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고등소설(하) (서덕희, 임요한/ 창비)	삼대 (염상섭/ 문학과지성사)	무정 (이광수/ 민음사)
1월	1학년 도도새는 왜 사라졌을까요? (엔드루체만/ 다섯수레)	고래동 향수 (방정화/ 한솔수복)	강아지똥 (권정화/ 길벗어린이)	캥거루는 왜 주머니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니 우드/ 다섯수레)
	2학년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바이어만/ 김영사)	땅딸보 뒹정벌레의 우주여행 (일제나바이슈/ 풀빛)	냄비와 국가전쟁 (미하엘 엔데/ 소년한길)	책으로 집을 지은 악어 (앙데식/ 주니어김영사)
	3학년 새 하늘을 연 영웅들 (정하섭/ 창작과비평)	오천년 우리 도읍지 (우리누리/ 주니어중장)	신나는 열두 달 명절이야기 (우리누리/ 주니어중장)	빛나는 솜씨 뛰어난 대주꾼 (우리누리/ 주니어중장)
	4학년 지도로 만나는 우리 땅 친구들 (전국지리교사모임/ 뜨인돌어린이)	우리 문화야, 속담을 알려줘! (이영민/ 북스미니아)	신토통이 우리 음식 (우리누리/ 주니어중장)	이선비 한옥을 짓다 (이경민/ 아이세움)
	5학년 애들이 역사로 가자 (조호상/ 풀빛)	한국사 편지 1(전반부) (박은봉/ 책과함께어린이)	한국사 편지 1(후반부) (박은봉/ 책과함께어린이)	우리 역사를 읊지인 맞수들 (설혜진/ 가나출판사)
	6학년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조향록/ 가나출판사)	재미있는 세계지리이야기 (김영/ 가나출판사)	동글동글 지구촌 경제 이야기 (서혜원/ 풀빛)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서혜원/ 다섯수레)
	중1학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1 소설) (김미영/ 창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1 소설) (김미영/ 창비)	빨간 양털 조끼의 세계여행 (불프강 코른/ 응진)	자전거를 못 탄는 아이 (장자끄상뻬/ 별천자)
	중2학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2 소설) (김영선/ 창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2 소설) (김영선/ 창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권 (전국역사 교사모임/ 휴머니스트)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권 (전국역사 교사모임/ 휴머니스트)
	중3학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3 소설) (김영선/ 창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3 소설) (김영선/ 창비)	아Q정전 (루신/ 창비)	이방인 (알베르카뮈/ 민음사)
2월	1학년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조대인/ 보립)	제주꾼 오형제 (이미애/ 시공주니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이호백/ 재미마주)	이건 꿈일 뿐이야 (크리스반 알스버그/ 책과콩나무)
	2학년 신발속에 사는 악어 (위기철/ 사계절)	개구리네 한솥밥 (백석/ 보립)	빈 화분 (데미/ 사계절)	신나는 텐트치기 (일제나바이슈/ 풀빛)
	3학년 열살이면 세상을 알만한 나이 (노경실/ 푸른숲)	아주 소중한 2등 (엘렌 비营养价值/ 국민서관)	좀 더 깨끗이 (강무홍/ 비룡소)	꼬미마녀 (오토프리트 프로이슬러/ 길벗어린이)
	4학년 풍뚱해도 넌 내 친구야 (크리스티네 브로거거/ 크레용하우스)	어린이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테 포사다/ 한국경제신문)	처음가진 열쇠 (황선미/ 응진주니어)	명랑구리, 세상을 바꾸다 (조르주상드/ 계수나무)
	5학년 한국사 편지 2(전반부) (박은봉/ 책과함께어린이)	한국사 편지 2(후반부) (박은봉/ 책과함께어린이)	한국사 편지 3(전반부) (박은봉/ 책과함께어린이)	한국사 편지 3(후반부) (박은봉/ 책과함께어린이)
	6학년 한국의 명시 베스트 20 (윤동주외/ 국민출판)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줄 고양이 (루이스 세풀베다/ 바다출판사)	너도 하늘말나리야 (이금이/ 무른책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IM비스콘 셀로스/ 동녘)
	중1학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1 수필) (인철수외/ 창비)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헤세/ 민음사)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1 시) (윤동주외/ 창비)	파이 이야기 (안미텔/ 작가정신)
	중2학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2 수필) (인철수외/ 창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2 시) (전국역사 교사모임/ 창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1권 (전국역사 교사모임/ 창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권 (전국역사 교사모임/ 창비)
	중3학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3 수필) (인철수외/ 창비)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중3 시) (인철수외/ 창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민음사)	오이디푸스 왕 (소포클레스/ 민음사)

리딩엠

초등 섹션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엠에서 초등학생들이 수업도서에 대한 독서 후 활동수업을 거친 후 쓴 것으로, 번갈아가며 매거진에 실습니다. 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쓰게 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크레파스를 상상해서 써 보세요

김도윤 (박문초1)

내가 가지고 싶은 크레파스는 시간을 멈추는 크레파스다. 나는 이 크레파스로 서준이가 만세를 하고 있을 때 몸 전체에 색칠을 하고 간지럼을 피울 것이다. 서준이는 몸이 멈췄기 때문에 나한테 반격을 못한다.



호아를 중심으로 감상문을 쓰세요.

류효민 (채드윅)

호야는 수달과 너무 신나게 놀다가 자기의 줄무늬를 바다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호야는 자기의 몸에 줄무늬가 없어진 것을 몰랐어요. 집에 가는 길에 만난 다른 친구들은 호야에게 키 큰 고양이, 또는 살쾡이라고 했어요. 그 때 호야는 놀라고 마음이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인데 인사를 안 하면 속상하기 때문이에요.



호야는 줄무늬가 없어서 그 대신 미역과 뱀 껍질로 줄무늬를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늑대와 여우는 호야에게 도깨비와 괴물이라고 했어요. 호야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동물들인 늑대와 여우가 자기를 무서워해서 엄청 재미있어했어요. 내가 만약 호야처럼 다른 모습으로 변했으면 마음은 두근거리지만 재미있어서 깔깔대며 속삭속삭 대는 것 같을 거예요.

호야가 줄무늬를 되찾아서 다행이에요. 줄무늬가 없었으면 평생 동안 놀림을 받고 다른 친구들이 아는 척을 안 하기 때문에 고생을 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슬펐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호야처럼되면 나도 마음이 엄청 속상하고 두근거릴 것 같아요. 하지만 호야처럼 나도 내 모습을 되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재미있었던 장면을 중심으로 느낀점을 쓰세요.

문서준 (박문초1)

폭스트롯이 집에서 밖으로 갔어요. 밖은 많은 동물들 소리로 시끄럽다는 것을 폭스트롯이 깨달았어요. 폭스트롯의 집은 조용한데 폭스트롯이 노래를 불러서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폭스트롯의 엄마, 아빠가 폭스트롯의 입을 막았어요. 폭스트롯네 가족이 산지기에게 불잡혔을 때 폭스트롯이 고무줄을 풀고 노래를 불렀어요. 폭스트롯에게 노래를 못 부르게 해서 엄마, 아빠가 미안했을 것이에요.



갯벌에서 놀았던 경험을 써 보세요

신서우 (박문초1)



봄에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갯벌에 갔다. 그런데 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낮잠을 잤다. 도착해서 줄을 서서 내린 다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뛰어 갔다. 갯벌에 발을 딛었더니 너무 더럽다고 생각되었지만 계속 만져 보니 재미있었다. 동생이랑 흘장난 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했다. 정화가 갯벌에 푹 빠져서 너무 신기했다. 내 동생이 나한테 진흙을 뿌려서 내가 진흙범벅이 됐다. 너무 재미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써 봅시다

신서희 (박문초1)

내가 좋아하는 놀이는 숨바꼭질 그리고 묵찌빠이다. 나는 서우랑 숨바꼭질을 할 때 서랍에 숨을 때가 제일 많다. 내가 거기 숨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서우는 절대로 못 찾는다. 또는 웃걸이에도 많이 숨는다. 거기에 숨으면 절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서우가 다가오면 웃음이 나올 것 같다.

소파 뒤에 숨은 적도 있다. 소파 뒤는 잘 보이지만 소파 위가 높아서 괜찮다. 그리고 몸을 커튼에 돌돌 말아서 안 보이게 한 적도 있다. 그 쪽에 숨으면 웃음이 계속 나온다.

그 다음 설명할 놀이는 묵찌빠이다. 서우가 가위, 바위, 보 할 때 나는 계속 이긴다. 어쩔 때는 서우가 묵묵묵을 내서 계속 이긴다. 그 때 나는 시무룩해진다. 하지만 내가 이길 때도 많다. 이기면 너무 신난다.



불가사리처럼 현실에 없는 동물을 상상해서 쓰세요.

이건희 (송일초1)

내가 만들고 싶은 동물은 불사조입니다. 불사조는 날개가 있고 불도 뿐을 수 있습니다. 불사조의 등에 타고 하늘을 날면 구름을 볼 수 있어요. 또 새도 자세히 볼 수 있고 경지도 볼 수 있어요. 불사조의 등에 타고 날면 재미있을 거 같아요.



이모부처럼 외국인이 우리 가족이 되면 어떻게 대할 것인지 써 보세요.

여상현 (신정초1)

주인공은 이모부를 싫어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생김새도 이모부 다르다. 눈은 파란색이고 키가 컸다. 또 우리말을 못한다. 주인공은 이모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처음에는 뾰족을 안 했지만 나중에는 이모부를 좋아하게 돼서 해 줬다.

나한테 외국인 가족이 생긴다면 나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말이 잘 안 통해서 같이 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먼저 한국말을 배워 오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잘 배웠는지 시험을 볼 것이다.



우리 집을 소개해 보세요.

이은준 (신정초1)

우리 집은 넓고 미로 같아요. 그래서 미로 집이예요. 부엌은 거실 옆에 있어요. 부엌에는 냉장고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어요. 나는 엄마가 요

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서는 공룡 메카드를 가지고 놉니다. 제 방에서는 놀 수 없어요. 장난감이 어질러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요.



내가 고래 뱃속에 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써보세요.

장주아 (명선초1)

내가 고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정말 재미있었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이지. 너희들도 한 번 상상해봐. 틀림없이 재밌겠다고 할 거야.

내가 고래 창자에서 만난 괴물들을 소개할게. 첫 번째로 만난 괴물은 구두충이야. 엄청 강력하단다. 실제로 구두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단다. 조심해야 해. 두 번째 괴물은 야광귀신이야. 그런데 다른 귀신들과는 다르게 똑똑하고 달리기를 진짜 잘해. 굉장히 빨라서 아기오징어를 잡아 목을 물어 벼렸어.

나는 야광귀신이랑 숨바꼭질을 할 거야. 그리고 고래의 항문 쪽에 숨어서 야광귀신을 유인할 거야. 그 다음 야광귀신이 왔을 때 놀래켜. 그리고 재빨리 항문 밖으로 밀어 넣어 버려. 구두충을 만났을 때는 손전등을 켜서 얼굴에 비출 거야. 그럼 죽겠지. 괴물들을 물리친 후 고래가 입을 벌렸을 때 재빨리 나갈 거야. 아기오징어는 숨겨줘야해. 죽은 아기 오징어를 그대로 두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 아기오징어가 하늘 나라에선 행복했으면 좋겠어.



부자 영감과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최희서 (명선초1)

부자 영감님! 내기를 해서 색시를 빼앗는 건 좋지 않아요. 색시는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색시를 빼앗고 싶다면 친구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총각과 내기를 할 때 영감님만 유리한 걸 정하지 말고 둘 다 못하는 것, 둘 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내기를 하세요. 그럼 불공평하지 않으니까요.

총각! 총각도 다음부턴 내기를 할 수 없다고 자신없어 하지 말고 한 번 도전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나 색시에게 도움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색시가 없을 때 어렵고 괴로울 거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질 거에요. 그리고 나는 착한 총각 아저씨에게 예쁜 색시가 생긴 게 참 기뻐요. 앞으로도 색시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상 속 동물을 써 보세요.



내가 폴리라면 동물원에 간 흑대를 구해주었을까요?

정소윤 (신정초1)

내 상상 속 동물의 이름은 라임이고 모습은 토끼를 닮았습니다. 라임이는 별을 먹습니다. 별이 나타나면 하늘로 날아서 별을 먹어요. 그럼 몸에 별이 나타나요. 9월에는 추석이 있잖아요, 9월만 밤하늘 높이 날아가서 보름달에서 자요. 낮이 되면 내려와서 우리 집으로 와요. 집에서 별모양으로 된 것은 다 먹어치워요. 나는 라임이와 같이 휴대폰 게임을 하고 싶어요.



악기를 배운 경험을 쓰세요.

최정철 (채드윅)

드럼을 잘 치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빨리 배워서 마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고 좋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힘들어서 살살 쳤는데, 다음주가 콘서트이고 계속 연습을 해야해서 안하고 싶었어요. 특히 드럼 스틱으로 두드리는 게 힘들었어요. 밤이랑 손을 같이 써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콘서트 날,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떨려서 으스스 했어요. 그래도 잘 해냈어요. 엄마한테 꽂도 받았어요.



책에서 본 악기 중 가장 신기했던 악기에 대해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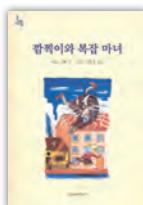
최준호 (채드윅)



베이스와 파곳으로 연주하고 싶다. 그리고 타악기도 좋다.

안녕? 나는 앤리스야. 너희가 너무 보고 싶어. 곧 아띠요를 방문할 예정이야.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얼른 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사온 스페인의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땐 말이 안 통하고 생김새도 달라 어색했어. 같이 따 먹던 망고도 없어서 너무 먹고 싶어. 여긴 아띠요와 달리 너무 추워. 가장 힘들었던 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였어. 예를 들어 내가 친구랑 부딪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더라고. 힘드니까 너희가 더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선물로 책을 준비한 이유는 책은 상상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야. 책을 읽으면서 '다음 이야기는 어떤 까?',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되지. 그리고 꿈을 정할 때 도움이 돼! 내가 최근에 스티븐 호킹에 대한 책을 봤어. 이후 나도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아띠요에 책이 많이 생기면 책을 많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 책을 시작으로 책이 모이고 모여 도서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출을 해서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을 거야! 곧 보자. 그럼 안녕!



깜찍이와 복잡 마녀 두 인물을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강대호 (신정초2)

깜찍이라는 아이는 정말 똑똑하고 꾀를 잘 낸다. 그래도 단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유혹에 잘 빠져든다는 것이다. 마녀가 인형을 던져 주었을 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마녀가 예쁘다고 하니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같으면 인형을 안 잡았을 것이다. 낯선 사람이라서 그렇다. 하지

만 깜찍이는 좋아하는 것에 쉽게 흔들린 것 같다. 앞으로는 마녀가 아무리 좋은 물건으로 유혹해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복잡 마녀는 하얀 머리카락과 뾰족한 코를 갖고 있는 못생긴 마녀다. 사나우면서도 매우 급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깜찍이를 잡아먹으려는 작전에 거의 실패하지만 꾀를 잘 낸 적도 있다. 바로 카나리아로 변신해 깜찍이네 집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꿈꿀하지 못해 사소한 부분을 놓치고 실수할 때가 많다. 깜찍이를 겨우 잡아 데려왔는데 집안 고양이가 깜찍이의 부탁을 받고 나가 부모님을 모셔오고 말았다. 마녀는 깜찍이를 잡아 데려왔을 때 좋아서 흥분했을 테지만 내가 만약 마녀였다면 진정하고, 고양이를 같이 잡아 넣어서 못 도와주게 했을 것이다.





깜찍이와 복잡 마녀 두 인물을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권우진 (신정초2)

깜찍이는 엄마와 아빠가 떠나면 혼자 집을 보는 용감한 소녀이다. 혼자 있을 때 매번 마녀가 찾아와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때마다 당당하게 마녀를 속이거나 어쩌다 한 번 속기도 한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깜찍이가 마녀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다. 그 때 깜찍이가 뺑가루를 열쇠 구멍에 넣어서 마녀가 열쇠를 못 넣도록 한 게 웃겼다. 급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침착하게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신중했기 때문에 복잡 마녀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본다.

복잡 마녀는 이가 매우 뾰족하며 귀는 늑대의 귀처럼 무시무시하다. 깜찍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먹으려고 했다. 하루는 임시 교사로 분장해서 깜찍이네 학교에 몰래 찾아간다. 깜찍이를 잡는데 성공하는 듯 했지만 아이들의 공격에 하수구로 빠지고 말았다. 하수구에 빠진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빠지는 모습이 속시원하고 우스웠기 때문이다. 하수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잡 마녀의 정체를 다 알아서 위험하니 다시는 안 나가고 하수구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썩은 치즈 같은 것을 먹고 겨우겨우 살아갈 것 같다.



에르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편지를 써 보세요.

김나현 (채드윅)

에르반에게

안녕, 에르반. 나는 나현이야.

너는 목요일에 칠판 앞에 나가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무서워하지? 내 생각에 너는 문제를 틀리면 부끄럽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봐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아. 나는 너처럼 무서워하는 게 없어. 하지만 네가 짜증이 나는 건 이해해. 걱정하지마, 할 수 있어! 내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 앞으로는 네가 용기를 가져서 수학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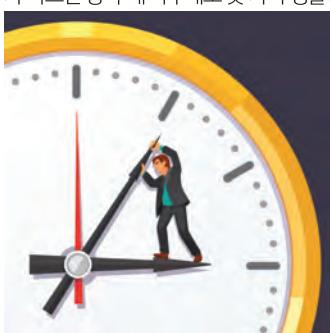
10월 22일
나현이가



렌肯의 입장을 생각하며 감상을 쓰세요.

이현서 (신정초2)

렌肯은 엄마,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령肯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령肯은 요정을 찾아가 키가 줄어드는 각설탕을 받아 드시게 했다. 처음에는 좋았을 테지만 나중에는 후회가 되었을 것 같다. 엄마와 아빠가 내 말을 꼭 들어주어야 하니 그게 좋았다. 하지만 엄마가 작으면 요리를 못해 쫄쫄 굶어야 하고, 아빠가 작으면 방학 때 아무데도 못 가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조지와 워턴은 어떻게 친구가 되었나요?

김민채 (신정초2)

조지와 워턴은 처음 봤을 때 어색했을 것 같다. 워턴은 어쩔 줄 모르고 '이제부터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조지는 워턴을 빨리 먹고 싶고, 워턴을 잡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워턴은 조지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조지와 친해졌다. 집 청소를 해 주고 조지의 이름을 지어 주고 조지와 밤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조지가 생일날 워턴을 안 잡아먹고 노간주나무 차를 마시자고 했다. 이래서 조지와 워턴은 친구가 되었다.

친구가 되려면 용기 있게 먼저 인사를 하고 이름을 물어본다.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면 더 좋다. 간식을 사이좋게 나눠 먹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대답을 한다. 친구가 연필을 안 가져왔으면 "연필 빌려줄게."라고 말한다. 또, 친구가 실수로 내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려도 화부터 내지 말고 "괜찮아. 다음엔 그러지 마."라고 말해 준다.

나의 소중한 친구는 윤지원, 김정원, 윤리희다. 라희는 우리 집 아래층에 산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 눈다. 정원이는 수영을 같이 다녀서 친해졌다. 수영장에서는 내 옆 레인이다. 수영이 끝나면 집에 함께 간다. 지원이는 학교에서 모둠원이랑 토론할 때 나와 의견이 잘 맞아서 함께 눈다. 지원이랑 나랑 키도 비슷하고 머리 길이도 똑같아서 친하다. 이 친구들은 우리 가족들 다음으로 소중하다. 지하부터 우주 끝까지 소중하다. 이 친구들이 없으면 난 슬플 것 같다.



부모님과 다툼 후에는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신채인 (박문초2)

렝켄은 원하는 것이 많은 아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렁켄에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 그래서 렁켄은 요정을 찾아갔다. 엄마아빠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요정이 설탕을 주었다. 렁켄은 그 설탕을 받고 기분이 좋았다. 엄마아빠가 이 설탕을 먹고 자기의 말을 잘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렁켄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엄마아빠는 무리한 약속이 아니면 다 들어주기로 했다.

나도 엄마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 경험이 있다. 내가 새 필통을 사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서운했다. 엄마는 지금 쓰고 있는 필통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받은 것이고, 새로 사려면 돈이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엄마가 필통을 안 사 주셔서 서운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 우리는 화해를 했다. 어떻게 화해를 했느냐면 내가 엄마에게 다른 제안을 하나 했다. 내가 태권도 승급을 하면 엄마는 언더랩스를 사 주기로 했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다. 엄마도 오케이 하셔서 우리는 화해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새 필통을 사고 싶다. 엄마가 꼭 새 필통을 사 주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엄마를 잘 설득해서 꼭 새 필통을 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이다.

엄마에게 조건을 걸어서 제안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엄마 기분이 나쁘지 않게 잘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해를 잘 해서 싸우지 않고 엄마, 아빠, 동생들이랑 즐겁게 지내고 싶다.



부모님과 다툼 후에는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이충수 (박문초2)

렁켄은 칙한 아이다. 하지만 렁켄은 한 개의 고민이 있다. 바로 렁켄의 부모님이 렁켄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준다는 것이다. 렁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요정의 집으로 찾아갔다. 렁켄은 요정에게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허락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요정은 렁켄에게 각설탕 두 개를 주고 각설탕을 엄마아빠가 먹는 음식에 넣으라고 했다. 렁켄은 엄마아빠가 설탕을 먹고 렁켄의 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렁켄은 몰래 차에 각설탕 두 개를 넣는데 성공했다.

나도 엄마가 내 부탁을 안 들어줘서 엄마와 싸운 적이 있다. 얼마 전에 엄마가 수학 경시대회를 잘 보아야 한다며 나에게 수학 공부를 6시간이나 하라고 했다. 수학 공부가 끝나고 나는 엄마에게 따져봤다. 엄마에게 소

리치듯이 수학을 6시간이나 공부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엄마에게 맞았다. 나는 너무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다. 다음날 내가 학원을 갔는데, 이상하게 엄마와 다툴없이 갔다. 나는 엄청 당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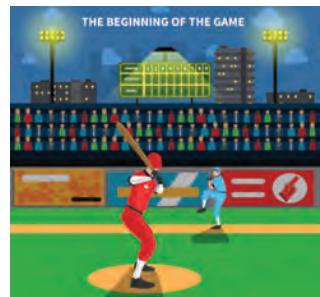
수학 경시대회 때문에 싸웠던 일은 아직 엄마와 화해를 못 한 상태이다. 엄마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하고 엄마에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엄마는 "충수야, 다음부터는 공부 조금만 하자."와 같은 말을 내게 해 주시면 서로 기쁠 것 같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홍유준 (사리울초2)

벤틀리는 목수다. 목수인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다. 벤틀리가 왜 목수가 되었나면 나무로 짍짓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무로 다른 것을 만들기도 좋아했다. 그래서 목수가 되기로 결정했고 좋은 목수가 되었다. 벤틀리는 직업을 정할 때 목수라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했다. 나무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업은 다른 사람이 정하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직업을 정해 주면 내가 못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나랑 안 맞는 직업이 되면 화가 날 수도 있다. 스스로 정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또 내가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 정말 좋아하지만 그 일을 잘하지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나의 장래희망은 야구 선수다. 누가 시켜서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이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동네 형들이랑 야구를 하고 있다. 두산에 들어가서 투수가 되고 싶다. 투수가 돼서 변화구를 던질 거다. 그래서 타자들을 삼진 잡고 싶다.



소피의 옷차림에 대한 생각을 쓰세요.

이서영(박문초3)

소피는 어릴 때부터 옷과 함께 지내온 아이이다. 그리고 남의 눈에 잘 띄길 바랐다. 그래서 항상 옷을 독특하게 입고 다녔다. 그 중 가장 예뻤던

웃은 터번과 많은 목걸이, 그리고 세 가지의 벨트를 이용해 만든 옷이었다. 소피의 옷은 나름대로 다 뜻이 있다. 터번은 예쁘고 알라딘이 생각나서 쓴 것이고, 목걸이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예쁘기 때문에 걸었다. 그리고 벨트는 파란색과 하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신의 나라 프랑스 국기를 상징한다.



이 들어 꿈을 포기해 버릴지도 모른다. 또한 집에서는 자신의 패션을 뽐낼 수도 없고,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가서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언을 들을 수도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칭찬이나 조언을 들으며 더욱 발전된 패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경고장을 보낸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에 방해되는 점, 그리고 아이들에게 놀림받지 않을 만한 패션 조언 등을 편지에 적어 보내야 한다. 그러면 소피가 학교 생활에 맞춰가면서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화는 위로와 설득을 이기지 못한다는 점을 선생님이 알았으면 한다.

을 채워주기 위해 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숙제를 하라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 는 말이고, 일찍 일어나라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다. 엄마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잔소리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엄마들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는 다른 이유도 있다. 우리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나보다 더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이다. 엄마가 많은 사랑으로 정성껏 키운 자식이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걱정할 것이다. 마음이 상하는 잔소리에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삶과 귀찮아도 고마운 마음으로 잔소리를 들으려 노력해야 한다.



고재와 승준, 힘찬 세 친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구선우(박문초3)

승준이는 자폐증이 있는 아이이다. 마음의 문을 닫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다가온 친구는 고재이다. 고재는 힘찬이와 친했었는데 승준이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다. 고재는 승준이와 친해지기 위해 승준이가 좋아하는 애벌레를 용기내 만져보기도 했다. 친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 하지만 친구들이 승준이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놀리니 승준이가 자신을 도와주려 했을 때 차갑게 밀쳤다. 말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승준이가 상처를 받았을 생각을 하니 조금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찬이는 승준이와 고재가 친한 것을 보고 질투가 났다. 자신도 고재를 좋아하는데 고재가 말도 안 걸어주니 심통이나 축구 대결로 싸우자고 했다. 반 친구가 심판을 봐주었다. 힘찬이는 고재에게 밸을 걸기도 하고 고재의 애벌레를 공으로 차서 맞추기도 했다. 하지만 힘찬이 편에 선 심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재에게 서운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힘찬이는 고재에게 사과를 하려고 편지를 썼다. 편지를 전달되지 못하자 싫어하는 애벌레를 직접 만지며 먼저 사과를 했다. 이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싸우면서 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화해를 하면 더 용기가 생기고, 친구가 사과를 받아주면 우정이 더 돈독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재와 힘찬이, 승준이는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될 것이다.



잔소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최주은(연송초3)

잔소리란 엄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같이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귀찮게도 하는 말이다. 엄마들은 잔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 같다. 하루 종일 집에서도, 밖에서도, 전화로도 잔소리를 한다. 우린 여태까지 많은 잔소리를 들으며 자란 셈이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니?', '텔레비전 좀 그만 봐라.', '그만 놀고 숙제 좀 해라.' 와 같은 잔소리들이 있다. 나는 이 많은 잔소리 중 언니와 싸우지 말라는 잔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다. 언니랑 노는 것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데 잔소리를 들으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들이 많이 하는 잔소리를 들으면 짜증나고 귀찮고, 스트레스도 쌓이지만 결코 잔소리가 없으면 안 된다. 엄마들은 우리의 부족한 점



기억에 남는 인물을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구정모 (박문초3)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트레버이다. 트레버는 엄마가 방학 동안 스트리커를 훈련시키면 삼십 파운드를 준다고 하여 도전한다. 스트리커는 아주 뻬른 개다. 이런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아주 다양한 방법을 티나와 같이 고민했다. 처음에 썼던 방법은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스트리커를 훈련시키는 것인데, 실수로 지나가던 사람의 지갑을 빼앗아 실패했다. 그리고 스트리커에게 핸드폰을 매달아 망가뜨려서 용돈이 깎였다. 게다가 한 달 동안 먹을 사료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루만에 다 줘서 용돈이 또 깎이고 말았다. 결국 마지막에는 스트리커를 훈련시켜서 무사히 용돈을 받는다.

나는 티나가 제안한 훈련법이 실패해서 화를 내는 트레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잘못을 하면 트레버가 더 많이 혼날 것이기 때문이다. 트레버가 그 개를 키우고 있고, 엄마와 아빠는 친구에게 화를 안 내고 자기 자식에게만 화를 내니 말이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정말 답답할 것 같다.

하지만 스트리커를 훈련시킬 방법을 너무 빨리 생각해서 시도하는 것 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렇게 빨리 생각하면 더 빨리 실패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 더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트레버라면 스트리커가 빨리 달렸을 때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생각해서 훈련시킬 것이다.



비르기트의 죽음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입장은 생각해보고 느낀점을 쓰세요.

문서연 (박문초3)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니가 사팔눈이 되어 있었다. 동생은 처음에 우습기만 했다. 눈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언니를 보고 깜짝 놀라 병원에 갔는데 암이었다. 암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던 동생은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울어서 이상해 하는 것 같았다. 뒤늦게서야 암이 무엇인지 알고 조금씩 슬픔에 잠겼다. 이별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언니가 갑자기 죽으니 너무 솔疚을 것 같다.

비르기트가 병원에 입원한 후 아빠는 음식을 먹을 때 들쑤시기만 하였다. 이를 보고 아빠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언니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것도 충격적인데, 점점 쇠약해져 가니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다 '그동안 왜 아픈 걸 몰랐을까?' 등등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음식

을 들쑤셨을 거다.

비르기트가 어린 나이에 죽는 걸 보며 동생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 동생이나와 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안 된다고 말한 적이 많다. 비르기트가 못 해본 일이 많은데 일찍 세상을 떠난 걸 보며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동생이랑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어야겠다. 그리고 동생과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



인상깊었던 전통 풍습을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이나연 (연송초3)

관례는 남자들이 치르는 성인식이고, 계례는 여자들이 치르는 성인식입니다. 관례식에 참여한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씁니다. 그리고 집안 어른이 주는 술을 마십니다. 계례에 참여한 여자는 머리를 말아 옮겨 비녀를 꽂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지곤지를 찍고 곱게 화장을 합니다. 이후 남자처럼 어른들께서 주시는 술을 받습니다. 이처럼 관례와 계례를 통해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조상들처럼 성인식을 올리지 않고 스무 살이 되면 어른이 된 것처럼 자유롭게 여러 일을 하고 선물을 받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는 날 여행을 가서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날을 친구들과 함께 보낼 겁니다. 이외에도 부모님과 쇼핑을 가서 화장품이나 옷을 사기도 합니다. 관례식을 하진 않지만 성인이 된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축하해 줍니다.

요즘 풍습이 바뀌어 좋은 점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식을 치러야 했는데 이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통 옷인 한복을 안 입는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한복을 입고 성인이 된 날을 기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통 풍습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쓰세요.

김다인 (채드윅)

'작별 인사'를 읽었다. 작별 인사는 주인공의 언니, 비르기트가 뇌종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어린 아이의 시각에 맞춰 쓴 이야기이다. 비르기트는 정말 멋진 아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동생을 환영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언니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정말 멋진 언니인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나는 할머니와 함께 울었을 것이다. 그리

고 아빠처럼 혼자 있고 싶어했을 것이다. 죽음을 겪어보지 못해 더 무서울 것이다. 나라면 매일 기도하고, 가족들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다면 가족들도 안심할 테고 작지만 의미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언니가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이 너무 슬프고 어려운 작별이라고 생각하다. 왜냐하면 피할 수는 있지만 인정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든 죽음을 맞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슬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언니가 언젠가 말을 걸어 오겠지'라고 말한 동생이 대단해보였다.



소피를 중심으로 감상문을 쓰세요.

김승현 (채드윅)

주인공 소피는 옷에 관심이 많은 아이다. 학교에 갈 때 예쁜 옷만 입는다. 어쩔 때는 치마를 두 벌 입고, 짹짜이 신발을 신는다.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이상했다. 짹짜이 신발만 신으니 영뚱이 같았다. 소피는 어렸을 때 옷, 지퍼, 단추를 가지고 놀았다. 그래서 영뚱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선생님도 소피를 영뚱이라고 불렀다. 나는 소피가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이 계속 경고 편지를 쓰는데 소피는 계속 예쁜 옷만 입고 다닌다. 나라면 선생님 말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소피 아빠가 백화점에서 소피가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사준 장면이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소피 아빠가 청바지를 사라고 했는데 소피는 그냥 원피스를 골랐다. 소피가 아빠 말을 매우 안 듣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소피였다면 옷을 평범하게 입을 거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이상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싫다.



감상문을 쓰세요.

이하윤 (신정초3)

바름이라는 남자아이가 나오는 <검정 연필 선생님>이라는 책을 읽었다. 처음에 바름이가 검정 연필 학습지를 시작하고 예쁜 선생님도 만나고 그 선생님께 검정 연필이라는 스마트 연필을 받게 된다. 다음 날 수학 시험을 100점 받아온다. 하지만 내 생각에 바름이의 행동은 안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시험은 자신의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데 바름이는 검정 연필로 풀었기 때문이다. 나라면 검정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 실력으로 시험 문제를 풀 것이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름이가 연필을 부러뜨리고 자신의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장면이다. 왜냐하면 바름이가 그 연필을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고 다시 그 연필을 쓰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그런 바름이의 모습을 보고 정직하다고 느꼈다.

만약 나에게 검정 연필이 생기면 아마 사전이 필요 없을 것이다. 나라면 아마 연필을 쓰고 또 쓰겠지? 문제 풀기로 아주 딱이지만 바름이처럼 시험에 쓰지 않고 내가 궁금한 문제를 만들고 O, X표를 해서 그 문제를 풀 것이다. 그런다면 웬지 나는 호기심이 없어질 것 같다. 또 부모님께 물어서 문제를 풀지 않고 검정 연필로만 풀 것이다. 검정 연필이 생기다면 너무 많이 써서 일주일 만에 닳아질 것 같다.



부모님과 다툴 후에는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류희경 (CMIS)

렌肯은 부모님이 늘 자신의 부탁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시는 것이 불만이었다. 부모님은 맨날 렌肯의 의견을 반대하기만 했다. 그래서 렌肯은 요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요정과 상담을 했다. 요정이 렌肯한테 마법의 각설탕을 주면서 렌肯한테 그 마법 각설탕 두 조각을 부모님의 차에 넣으라고 했다. 부모님이 렌肯의 말을 안 들어주면 키가 절반이 줄어든다. 렌肯은 이걸 먹은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다.

나도 부모님과 다툴 경험이 있다. 그냥 나는 게임을 많이 했을 뿐이다. 7시간이나 게임을 해서 엄마가 핸드폰을 뺏었다. 그 밤 동안 계속 울었다. 그 다음날, 나랑 형이랑 게임을 할 시간을 정했다. 그러자 엄마가 정해둔 시간 동안만 게임을 하게 해 주었다. 그 시간보다 더 하면 핸드폰을 다시 뺏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화해하기 위해 부모님과 내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못을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서 부모님의 화를 풀었다.



다. 부모님과 잘 화해하려면, 먼저 부모님께 내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지켜야 할 규칙을 함께 만들고, 부모님도 나도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



'아기 다람쥐' 이야기를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엄마다람쥐가 산에서 아저씨 다람쥐를 찾다가 아이들한테 잡혔다. 엄마다람쥐는 웅길이네 집에 있는 철망에 갇혀 있었다. 아기다람쥐가 엄마다람쥐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엄마다람쥐가 도망친 후에 웅길이네 집에 갔다. 웅길이 방 안에 있는 철망에서 엄마 냄새가 났다. 그래서 철망 안에 들어갔는데 그만 갇혔다. 엄마다람쥐와 아기다람쥐는 아직도 못 만났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매우 화가 났다. 자기들 재미를 위해 다람쥐를 잡은 아이들에게 화가 났다. 자기도 생명이고 다람쥐도 생명인데 아이들은 다람쥐를 함부로 잡아갔다. 만약 자기도 이유없이 잡히면 기분이 나쁠 텐데, 엄마다람쥐도 그럴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미웠다. 그리고 웅길이도 나빴다. 그 작은 케이스에서 엄마다람쥐가 불편할 텐데 그건 생각을 안 했다. 자기도 거기 있으면 불편할 텐데. 그냥 엄마다람쥐에게 참으라고 마음속으로 말만 한 것 같다.

잘못을 한 웅길이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람쥐들을 만나게 해 줘야 한다. 웅길이가 아기다람쥐를 풀어 줘서 엄마다람쥐와 아기다람쥐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지렁이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지구를 구한 꿈틀이 사우루스>는 공룡시대부터 살아온 지렁이들의 이야기이다. 평소에 지렁이는 징그럽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가 왔을 때 길가에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는 걸 보자 그 지렁이를 발로 밟아 버렸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지렁이들은 참 슬모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지렁이에 대해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먹어준다는 점이다. 만약 지렁이들이 쓰레기를 먹어주지 않았다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저분해져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지렁이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뿌리면 지렁이들과 다른 땅 속 생물들이 점점 죽게 되고 땅이 오염돼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충을 죽여 깨끗한 농작물을 얻겠다고 농약을 마구 쓴다.

지렁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쓰지 말고 지렁이들

을 많이 키워야 한다. 지렁이 보호 구역을 만들어 그곳에서 많은 지렁이들을 키운다. 이후 농장에 지렁이들을 보내준다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건강한 농산물이 잘 자랄 것이다.



한옥을 소개하고 느낀점을 쓰세요.

이예원 (연송초4)

한옥은 여러 가지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채는 남자 아들이 서재 겸 손님을 접대하는 곳으로 사용하던 방이고, 안주인과 며느리, 딸들은 인채를 사용했어요. 그밖에 대청, 부엌, 사당, 행랑채 등이 있어요. 한옥은 초기집과 기와집, 너와집 등 종류가 다양해요. 초기집은 지푸라기로 지붕을 만든 집이고, 기와집은 기와를 지붕에 얹어서 만든 집이에요. 너와집은 기와처럼 얇은 돌조각이나 나뭇조각으로 지붕을 올린 집이에요.

저는 한옥의 온돌을 가장 칭찬하고 싶어요. 옛날 사람들은 추울 때 방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을 사용했어요. 온돌의 구조는 아궁이와 부녀기, 방고래, 구들장, 굴뚝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따뜻한 열이 방바닥 아래에 있는 길을 따라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주고, 연기는 굴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온돌이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불 때문에 나는 연기를 집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굳뚝으로 내보내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 냈는지 참 신기해요.

요즘과는 달리 집을 지을 재료를 많이 구하지 못하는 옛날에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장점이 많은 한옥을 만든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로움이 많은 집을 만들어 낸 우리 조상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김민서 (신정초4)



'게임 중독'에 대한 생각을 쓰세요.

유우진 (CMIS)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게임들도 생겨난다. 게임은 재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자극적인 요소가 많아 게임 중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독'은 한 가지에 빠져 계속 그 생각만하게 되는 증상이다. 어떤 친구들은 밤을 새서 게임을 하여 안 좋은 호르몬이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온종일 게임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셧다운 제도를 제시했다. 셧다운 제도는 2011년 11

월에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셧다운'은 강제로 컴퓨터를 끈다는 뜻이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제도에 반대한다. 사람들은 이미 중독이 되어 있어서 강제로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심리적 부담감이 나날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견딜 수 없어서 몰래 불법 사이트를 접속할 수도 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순수하게 즐기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이 밤뿐인 경우도 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만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면 너무 불공평하다.

셧다운 제도보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게임 중독을 막아야 한다. 가족과 게임을 같이 대화하면서 재미있게 즐긴다.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한다면 즐거운 문화생활이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친밀해질 것이다. 또한 공부에 도움을 주는 학습용 게임을 하면서 서서히 줄여갈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 전원을 끄는 방법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스티그프리가 사라지고 오토제국 신민들의 자유를 되찾을 때는 정말 힘이 들 것 같아요. 자유를 모르는 신민들이니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판단을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오토제국의 신민들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면 도둑질처럼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토제국에서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남을 배려하면서 자유롭게 차근차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큰손 할아버지와 아픈 나무를 보며 들었던 생각을 쓰세요.

김현서 (채드윅)



'오토 제국'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김가은 (채드윅)

오토제국에는 여러 신민들이 살아요. 그리고 스티그프라는 황제가 오토제국과 신민들을 다스려요. 오토제국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무조건 스티그프리의 말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신민들이 항상 하는 한 마디는 “하잇, 스티그프라!”예요. 오토제국 신민들은 항상 “네”라고만 대답할 수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다 보니 자유를 몰라요.

많은 신민들은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스티그프라의 말만 들어야 하니 정말 불행하고 힘들 거예요. 만약 스티그프리가 사라진다면 오토제국의 신민들은 어쩔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될 거예요. 그 동안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일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표자를 선출 할 수도, 원하는 일을 선택해 생활을 꾸려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두에게는 자유가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요.

큰손 할아버지는 나무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나무의 걸모습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아신다. 사람들은 나무가 아픈 것 같으면 항상 큰손 할아버지를 부른다. 큰손 할아버지는 아픈 나무를 보고 영양제를 주기도 하고 나쁜 것들을 제거해 주기도 한다. 나는 큰손 할아버지가 참 대단한 것 같다. 나무를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용어도 있고 고치는 방법도 다양한데 그 모든 것을 터득하셨다.

큰손 할아버지께서 치료하신 아픈 나무들 중 가로수가 가장 인상깊었다. 대부분 가로수들의 줄기나 가지에는 플래카드의 끈이 많이 있고 전기선도 있다.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꽉 조이며 뿐만 아니라 가지까지 영양분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멈춰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지 못한다. 입장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 끈이 꽉 조여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나무들은 슬프고 화날 것 같다.

광고 선전물을 나무에 매달지 말고 지역에서 마련한 광고 게시판에 붙여 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나무를 위해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그러면 나무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시들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귀찮아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그러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국어의 재미가 은하수처럼 펼쳐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미리내 국어 (1~6학년)

학교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교재
우리 아이들의 기초체력을 키워주기 위해 미리 만나는 교재
교과서 어휘, 받아쓰기, 맞춤법, 띠어쓰기, 문장쓰기, 원고지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재

"저학년때는 다른 과목보다도 국어를 잘해야 하고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문제 해결능력이 길러져서 다른 과목의 문제들도 잘 풀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려더 중 알게된 교재가 초등학생을 위한 미리내 국어라는 책이랍니다. 학년별로 따로 교재가 나와있어 우리말에 맞는 1:1 수업이 가능하답니다. 학부모 서평 중"

왕종일 저음·리딩엠·값 9,000원
도서구입: 앤터마크, YES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서 구입 가능

www.readingm.com



광고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홍예지 (채드윅)

광고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생생하게 기억하여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스타를 광고에 내세우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인기스타가 나온 광고를 보고 소비 욕구가 생기기도 한다. 광고를 통해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면 기업은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일부를 국가에 낸다. 국가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그 돈을 쓸 테니 경제가 활발해진다.

하지만 광고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 광고가 너무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하위 사실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비타필'이라는 기업의 대표가 2년 동안 수입해 온 비타민c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이러한 광고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상품의 질을 좋게 만들기보다 마케팅 전략에만 신경을 쓸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날 뿐이다.

광고를 너무 믿는 소비자들의 태도도 고쳐야 한다. 광고에서 나오는 물건의 성분을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또는 그 제품을 산 지인에게도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을 것이다. 광고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쇼핑 중독증에 걸릴지도 모른다. 항상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비판적 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생활 방식도 느낄 수 있고, 이로써 가까워질 수 있다.



화폐의 발달을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김진서 (채드윅)

화폐가 없던 선사시대에는 물물교환을 하다가 조개껍데기를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삼국시대에는 쌀과 옷감으로 물건을 교환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들어서 엽전이라는 화폐가 새로 생겨났다. 엽전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 모양이 되었다. 엽전으로 화폐가 바뀌었을 때 아주 놀라웠다. 쌀과 옷감 등의 물건보다 가볍고 작아서 좋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의 화폐는 아주 다양한 발전을 거쳐 왔다.

만약 내가 선사시대로 가서 물물교환을 한다면 단점과 장점이 두루 있을 것 같다. 먼저 서로 바꾸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바꾸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한 자리에 모이면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니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대화를 통해 마음을 맞춰가는 일도 흥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바꾸고 집에 돌아오면 시간만 낭비될 뿐이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약이 필요한데 없으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

오늘날의 화폐로 지폐와 동전, 카드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쉽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카드 결제 서비스 등이 생겨났다. 옛날에는 물건이나 엽전을 화폐로 사용해서 불편했는데 오늘날은 훨씬 편리하다. 특히 체크카드는 일정 금액을 넣고 주면 지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폐 여력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카드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낫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에 돈을 입금하고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화폐의 발전은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고 시장의 발달을 가져왔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 화폐의 종류와 방법들은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



남북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양승현 (채드윅)

북한은 우리나라와 분단을 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차이가 생겼는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언어이다. 물건이나 음식을 부르는 말이 다르다. 예를 들어 햄버거는 북한에서 '고기겹빵', 빙수는 '단얼음'이라고 부른다. 이를 보면 북한에서는 영어나 한자어를 쓰지 않고 순우리말을 지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의 차이를 보면서 북한이 우리말에 대한 궁지가 얼마나 높은지도 느낄 수 있었지만,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 영어를 배우는 비중이 크지 않다. 2년을 적게 학교에 다니고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어를 잘 쓰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북한은 헛날 통일을 생각한다면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통일을 했는데 밀하는 것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말을 배우고, 남한은 북한의 말을 배우려 노력해야 한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감상을 쓰세요.

김태은 (채드윅)

주인공 마르그리트는 동물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처음 마르그리트는 화가 나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이 마르그리트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무작정 사람들한테 가면 더욱 피해를 볼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그리트는 투표를 해서 표를 얻으려고 연설을 했다. 이로써 동물들의 대표가 된 마르그리트는 동물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협상을 벌였다. 이를 보며 정치란 사람들을 설득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끄럽게 하는 집에 가서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대화로써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비 이자씨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른 친구가 중간에서 해결을 해주기도 한다. 꼭 정치인이 아니라도 정치인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만약 사람들이 생활에서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싸움이 늘어나고 문제 가 해결되지 않아 생활에 큰 불편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사회가 무 질서해지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르그리트의 행동을 본받아 문제와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뒤샹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며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에게 예술이란 처음엔 심사위원들의 생각과 같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뒤샹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일상 용품은 우리에게 친근하고, 또 익숙해서 더 영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감을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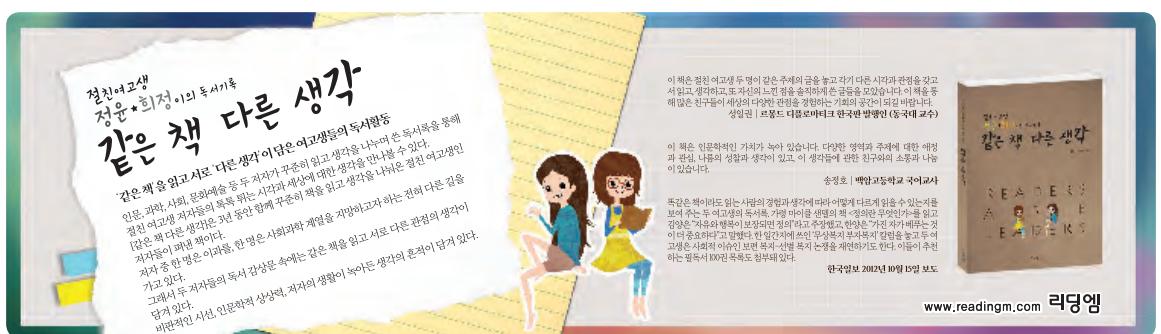
음악가의 삶에서 인상깊었던 점을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박성민 (삼목초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는 '노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모차르트를 데리고 세계를 돌며 음악을 공부시키고, 공연에 참가하게 했다. 모차르트는 자신이 불행하다고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수많은 곡을 작곡했다. 만약 부모님께서 모차르트가 천천히 음악을 즐기도록 두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모차르트는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면서 더 좋은 곡을 작곡했을 것 같다.

반면 슈베르트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인물이었다. 슈베르트가 음식점에서 갑자기 양상치 떡풀라 메뉴판에 오선지를 그리고 기억해 두는 모습에서 얼마나 음악을 즐기는지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자신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 음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슈베르트처럼 음악을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으며, 이런 경험이 쌓여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두 음악가는 성향은 달랐지만 모두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든, 힘든 고비를 이겨내든 진정으로 즐기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나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란 힘든 일이다. 그래도 다양한 음악가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스스로에 대해 꾸준히 생각해 나간다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인상깊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감상을 쓰세요.

태승현 (동명초5)

'무연'은 이 책의 주인공이자 내가 가장 인상깊었던 인물이다. 무연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이별을 해서 망해라는 스승님과 함께 산속에서 살았다. 무연의 부모님은 막리지 공비추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순장자가 되어서 돌아가셨다. 순장을 담당하는 집사장 망해가 갓난아기였던 무연만은 순장시키지 않고 몰래 데려와 키운 것이다. 무연은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 산에서 내려와 우연히 동맹제에 참여한다. 선왕의 묘 근처에서 그림대회에 참가했는데, 환청이 들려 스승님께 말씀드렸고, 그것이 선왕의 묘에 묻힌 엄마의 목소리라는 것을 망해가 알려주었다. 이후 공비추와 부모님 사이에 얹힌 악연을 알게 된다. 무연은 공비추의 아들 공탁이 자신을 없애버리려던 걸 알면서도 공탁을 용서하고 화를 얹눌러 악연을 끊어냈다.

무연에 대해 가장 공감되었던 점은 무연이 공탁 때문에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스승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참았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 5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를 이르면 꼭 이른 사람을 혼낸다. 그리고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벌점이 나가서 그냥 참곤 한다. 하지만 화가 너무 많이 나면 참을 수가 없다. 무연은 공비추 때문에 억울하게 부모님을 잃었는데도 그 슬픔과 화를 묵묵히 참아낸 게 너무 대단하다. 마침내 공탁을 용서하여 악연을 끝낸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하지만 비판하고 싶은 점도 있다. 무연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무사가 되기 위해 스승님의 허락 없이 산에서 몰래 내려왔다. 그래도 이때까지 가르치고 길러주신 스승님인데 마음대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스승님께서 약초를 캐고 들어오셨는데 불러도 없고 바닥도 차갑고 웃도 없으니 얼마나 놀라셨을지 떠오른다. 자신과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리 궁금 하더라도 스승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조금 참고, 내려오고 싶으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동물 교류에 대한 생각을 쓰세요.

서재현 (CMIS)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세 차례나 걸쳐 코끼리가 들어왔다. 첫 번째 코끼리는 조선 태종 때 일본이 조선과 친해지려고 주었는데 높은 관리를 족여 유배 보냈다. 두 번째 코끼리는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치를 때 철조망이 부서지면 동물이 해를 끼칠까봐 독약을 먹여 죽였다. 세 번째 코끼리 사쿠라는 일본 동물원이 문을 닫자, 서울대공원에 보내져 김진아 씨에게 길들여졌다.



이렇게 일본과 조선은 동물 교류를 해 왔다. 하지만 나는 동물 교류를 반대한다. 만약 동물 교류를 하면 많은 동물들이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뿐인 가족을 잃는다면 어떻겠는가? 둘째, 동물들이 다른 나라에 갈 때 배에 오랜 시간동안 타야 하니 아프거나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이 옮겨지는 곳은 그 동물이 살던 환경이나 기후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동물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동물 교류 외에도 다른 나라와 친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문화재 교류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만 점 이상이 해외에 있다고 한다. 일본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로 간 것이 많다. 하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을 서로 돌려주어 친해질 수 있다. 상대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일이고, 문화 보존에 기여하는 일이나 우호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져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김예림 (CMIS)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를 하는 외국인이 다른 모델의 성격이나 외모에 대한 모욕, 또는 나쁜점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보았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우리 반 남자 아이의 코가 낮아서 못생겼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를 듣고 그 사람이 알게 되면 기분이 매우 나쁠 거라는 생각을 했다.

이처럼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써 자존감이 낮아지고, 지나치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수술로 인해 부작용이 생겨 얼굴이 봇고, 형태가 이상해져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컴플렉스가 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상대를 평가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존중하고 내면을 중요시 보아야 한다. 사람이 착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친구도 많이 생긴다. 또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마음이 아름다으면 얼굴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얼굴의 아름다움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은 오래 간다는 뜻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 옳다고 본다. 앞으로 사람들의 외모에 대해 나만의 것대로 평가하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해야겠다.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태도를 생각해 써보세요.

김민아 (인성초5)

조선 후기 때 들어온 천주교는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되었다. 천주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구하고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종교로 귀족이나 양반들이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주교를 믿거나 천주실의를 읽거나 들은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았다. 주인공 장이의 아버지도 천주학 책을 베껴서 매를 맞았는데 장독이 올라 죽었다.

장이가 제일 억울하고 힘들었던 점은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못한 점이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이제 완전히 고아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궁제비가 상아찌를 빼앗았을 때도 최 서태에게 알리면 많이 혼날 테고 점점 신뢰도 떨어져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꿩뚱만 것 같다. 만약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면 마음 속 두려움과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그저 속으로 앓기만 하는 장이가 안타깝다.

홍교리는 평등한 세상을 원하여 천주교를 믿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이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그 시기에는 천주교를 믿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들킨다면 홍교리도 나라의 법을 어기고 천주학을 믿었다는 죄목으로 벼슬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홍교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를 의지하고 믿은 장이는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므로 큰 슬픔에 빠질 것이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천주학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그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본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생각을 쓰세요.

박은효 (명선초5)

유전자 조작 식품이란 원래 있던 작물에 사람들이 다른 작물의 유전자를 넣어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것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다른 농작물을 과달리 더 클 수도 있고, 더 빨리 자랄 수도 있다. 영양분이 더 많거나 해충에 강할 수도 있다. 일부 회사나 공장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 더 큰 작물을 싸게 팔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 식품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기존 농작물에 있던 영양소가 파괴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동물이나 환경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물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어 질병을 얻을 수 있고, 이로써 생태계의 질서에 혼란이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하여 팔리는 것을 막고, 기업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주의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아울러 음식을 사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산다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통을 막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건강한 식품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 더 철저하게 감시하는 일도 필요하다. 국가에서 국민의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신중히 먹거리를 구매한다면 유전자 조작 식품이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독립운동가는 누구인가요?

김민서 (해송초5)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까지의 기록을 쓴 책이다. 우리나라 는 1905년을 시기로 일본과 강제로 맺은 조약인 을사조약 때문에 외교권을 빼앗겼다. 이토 하로부미는 일본 제국이 조선의 외교권을 맡아서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험박이거나 마찬가지였다. 외교권은 당당한 독립 국임을 뜻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고종은 거부했지만 이토 하로부미는 조선의 대신들을 모아 강요하여서 강제로 조약이 맺어졌다. 결국 1910년에 한일병합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겼다. 그러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독립 운동을 하였다. 한일 병합 전에는 의병 운동, 애국 계동 운동 등을 전개했고, 이후에는 만세 운동, 독립군 편성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독립 운동가에는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이 있다.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독립 운동가는 안중근이다. 안중근은 평화를 방해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지럽힌 이토 하로부미를 암살했다. 안중근은 바로 붙잡혔지만 당당했다. 가사 전에는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직접 싸웠고, 사로잡은 적병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었다. 만약 나라만 적병을 죽일 것 같다. 풀어 주면 위치를 일본군에게 알려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독립 운동가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외교권과 주권을 뺏긴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해야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일본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과를 해야 한다.



순장 제도에 관한 내 생각을 쓰세요.

김민재 (연송초5)

순장 제도란 한 집단의 지배자나 한 국가의 왕의 묘나 능과 함께 가까운 사람들을 묻는 것이다. 나는 순장 제도에 반대한다. 순장 제도는 유능한 인재들이 땅에 묻혀서 없어지고 이 때문에 국력이 악화된다. 또 억울하게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중대하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당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죽기 때문에 순장당하기 전에 슬프고, 무섭고, 억울하다.

이 책에서 공비추가 무두지 장군을 순장자로 지목했는데, 그 이유는 순장자였던 자신의 딸을 몰래 빼돌린 일을 감추고, 뛰어난 장군인 무두지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때, 무두지의 아내는 임신을 해서 바라던 아이를 얻기 직전이었는데 순장자로 채택된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겨서 무두지와 아내 모두 매우 슬프고 억울했을 것 같다. 하지만 무두지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대신 순장 제도 폐지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진다.

고구려 지도자들은 선비족과의 싸움이 끝난 후 선왕의 릉을 옮기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 왕과 같이 묻힌 순장자들의 유골 처리가 문제였다. 두 개의 의견이 나왔다. 공비추의 아들 공탁은 전 릉의 순장자들을 다시 순장해야 된다고 했고, 무두지의 아들 무연은 순장자들을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양지 비른 곳에 묻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무연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미 죽은 사람을 굳이 다시 순장시킬 필요가 없다. 순장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순장자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순장을 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강제로 화상당했던 영혼들을 다시 자유롭게 해 줘야 한다. 따라서 유족들이 유골을 받아서 장례를 잘 치러 줘야 한다. 이미 순장이 폐지된 이상 실시해서는 안 된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내 의견을 쓰세요.

김정현 (신정초5)

초기에 유전자 조작 식품은 관심을 받으며 인류의 희망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유전자 조작 식품의 장점은, 식품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유전자 조작을 하면 저렴한 값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인류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해충에 강해서 쉽게 상하지 않으므로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다.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전자 조작 식품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의 유전자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특히 유전자 조작 식품은 병충해를 막기 위해 독성 유전자를 넣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고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식물들이 그대로 시장에서 판매되면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식품을 먹고 알레르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고,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아도 다른 증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악용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유전자 조작 식품을 계속 개발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각국의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우정에 대한 내 생각을 쓰세요.

김태연 (송원초5)

월버는 첫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을 뻔했다. 편의 아버지가 작다고 죽여 먹자고 했는데 편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주커만 씨의 헛간에 팔았다. 그래서 주커만 씨의 헛간에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살롯이 월버를 불쌍하게 여기고 친구가 되자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죽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월버는 절규했다. 하지만 살롯이 거미줄에 대단한 대지라고 써서 월버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이렇게 월버는 살롯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정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마지막에 월버를 구하기 위한 살롯의 행동은 지나치다. 자기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품평회까지 갔다는 것이 이상했다. 이것은 다수를 죽이고 하나를 살린 것과 같다. 살롯에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있었다. 미리 월버에게 재주를 가르치고, 품평회 때에는 헛간에서 안전하게 알을 낳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친구를 자기 자식들보다 가치 있게 여겼는지 이상했다. 월버의 부탁을 거절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기를 희생하면서 친구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는지 이상했다. 월버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죽는다고 영양 읊기만 하고 살롯에게 부탁만 해서 짜증났다. 자기 살 길은 자신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자기 밭로 글씨를 쓰거나 헛간에서 도망치려는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돼서 도움을 받았다면 괜찮은데 무조건 처음부터 살롯에게 도와달라고 하던 월버가 너무 뻔뻔해 보여서 화가 났다. 그래서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 나오는 월버와 살롯의 우정은 이야기에서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기는 매우 힘들다. 힘들 때 격려를 해 주거나 조언을 해 주는 건 괜찮지만 친구한테 무엇이든 다 해 달라는 건 친구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다. 자기도 해결하기 힘든 일을 넘한테 떠넘기거나 무작정 친구에게 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고통이 2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우정은 있어선 안 되고 있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내 의견을 쓰세요.

김휴민 (송일초5)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식품의 유전자를 변경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유전자 식품은 많은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농약 뿌리기는 농사를 지을 때 큰 골칫거리가 된다. 하지만, 뛰어난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 조작 식품은 예외다. 유전자를 조작할 때부터 해충에 강하게 조작했다. 덕분에, 우리는 무농약 식품을 먹을 수 있으며,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값에 식품을 팔 수 있어서 인류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식품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장점은 헛된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유전자 조작 기술은 선진국 위주로 개발되며 후진국은 개발하기 힘들다. 기술을 개발할 여유가 없는 후진국은 선진국에서 기술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큰 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선진국은 더 잘 살게 되고, 후진국은 살기 어려워져 나라 간에 빈부격차가 커진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더욱 큰 문제점은 생태계 파괴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주변의 식물에 영향을 줘 식물들을 죽이고, 결국 생태계를 파괴한다. 예를 들어, 독성이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꽃가루가 다른 식물에 번져서, 그 식물을 먹은 곤충들이 절반이나 죽은 일이 있었다. 유전자 조작의 영향이 식물에만 미치지 않고 아무 관련 없는 곤충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이 계속 퍼진다면 전 세계 환경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 조작 식품을 개발하는 것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 개발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악을 주고 자신은 돈을 버는 것이다. 만약 유전자 조작 식품 개발을 계속하면 이기적인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자연과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길 바란다.



엄마와 아이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써 보세요.

류동하 (신정초5)

질리는 원래 사고를 많이 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비뚤어진 아이다. 그러나 트로터 아줌마를 만나고 난 뒤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늘 친엄마를 그리워했던 질리는 트로터 아줌마의 돈을 훔쳐 탈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질리는 탈출을 코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버스표를 파는 직원이 질리가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리를 트로터 아줌마가 용서해 주자, 질리는 원래 트로터 아줌마를 싫어하였지만 이 일을 계기로 좋아하게 된다. 질리는 이제 조금씩 성격이 바뚤어진 것을 바르게 고치고 있다.

원래 친엄마인 코트니와 트로터 아줌마 중 트로터 아줌마가 조금 더 엄마 같아 보인다. 관심이 없는 친엄마보다는 보살펴 주는 트로터 아줌마가 더 엄마 같다. 트로터 아줌마는 돈을 훔친 질리를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잘못한 점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원래 이런 모습이 진짜 엄마의 모습이다. 코트니처럼 사랑도 없고 딸을 버린 엄마는 엄마가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트로터 아줌마가 질리에게 친엄마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질리를 쳐한 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엄마와 자식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아이와 엄마 사이는 서로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했다고 믿고 검사를 안 하는 엄마는 아이를 그만큼 신뢰하는 것이다. 아이도 엄마가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스스로 숙제를 잘 해서 신뢰를 지킨다. 아이와 엄마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둘의 사이는 매우 심하게 틀어져 나중에는 불편해질 수도 있다. 엄마와 아이가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해야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로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했다고 믿고 검사를 안 하는 엄마는 아이를 그만큼 신뢰하는 것이다. 아이도 엄마가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스스로 숙제를 잘 해서 신뢰를 지킨다. 아이와 엄마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둘의 사이는 매우 심하게 틀어져 나중에는 불편해질 수도 있다. 엄마와 아이가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해야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리딩엠이 스마트해졌습니다!

리딩엠의 교육방향, 교육목표 그리고 각 지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보고 싶다면

→ **리딩엠 홈페이지(www.readingm.com)**

리딩엠에서 이뤄지는 글쓰기 등 교육활동의 다양한 결과물을 눈으로 읽고 확인하고 싶다면

→ **리딩엠매거진(magazine.readingm.com)**

내 아이의 다음주 수업도서 목록, 지금까지 읽은 독서이력, 글쓰기 결과물을 보고 싶다면

→ **램스솔루션(online.readingm.com)**





엄마와 아이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써 보세요.

윤석환 (박문초5)

1960~70년대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죽었다. 그러자, 전쟁을 반대하는 히피족이 생겼다. 당시 히피족이었던 질리의 엄마인 코트니는 자유로운 사랑을 주장하며 질리를 낳았지만, 키울 생각은 전혀 없었다. 질리는 고아원에 보내졌고, 위탁모 가정을 옮겨 다니며 살게 되었다. 그중 마지막 위탁모인 톰슨 파크에 있는 트로터 아줌마의 집에서 이 책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질리는 처음에 트로터 아줌마의 집이 정말 더러워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 집에 있는 아이인 윌리엄 어니스트는 저능아인 것 같아서 싫었다. 트로터 아줌마도 윌리엄 어니스트를 감싸고 도는 이상한 아줌마인 것 같아서 싫어했다. 하지만 트로터 아줌마의 진심을 깨닫고 점점 질리의 마음이 바뀌고, 마지막에는 질리의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자 가기 싫다고 하기도 했다.

할머니 댁으로 간 질리는 엄마를 만났다. 무척 기대를 하던 질리는 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친엄마가 돈을 받았으니 이를만 있다가 간다고 했기 때문이다. 트로터 아줌마와 친엄마를 비교했을 때 트로터 아줌마가 더 엄마인 것 같다. 트로터 아줌마는 질리가 가출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질리의 잘못이 아니라며 정을 더 쌓으려고 했지만, 친엄마는 오히려 질리와의 정을 쌓기는커녕 빨리 헤어지려고 했으며 질리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이 간에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려는 마음이다. 잘 키우려는 마음을 가지려면 엄마는 아이에게 말을 자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며,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질리의 친엄마는 질리를 잘 키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반면에 트로터 아줌마는 친 엄마가 아니더라도 질리를 잘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엄마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편견과,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세요.

최윤후 (해송초5)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몸매가 마른 것, 하얀 피부, 쌍커풀, 멋진 헤어스타일, 황금 비율 등이 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외모로만 판단을 한다. 과연 '잘생겼다', '못생겼다'에 기준이 있을까?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무조건 잘생기기만 하면, 외모가 뛰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자신의 행실을 가꿀 생각은 안 하고 외모에만 신경을 쓴다. 특히 연예인들은 자신의 외모를 뽐내기 위해 성형 수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 실제 엄청 유명했던 스타가 성형 중독이 돼서 못 알아볼 만큼 달라졌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중요하

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망친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행동이다. 아무리 예쁘고 멋진 연예인들이라도 말 또는 행동을 잘못하면 조사를 받고, 그러면 그 연예인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아름답다고 해서 갑질을 해도 될까? 아름답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될까?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도 행동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고 혀를 차게 된다. 텔레비전 방송이나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팬을 만들기 위해 아름답게 꾸미고 출연을 한다. 사람들은 외모에 훌려 그들의 팬이 된다. 하지만 평소에 욕을 많이 하거나 행패를 자주 부리면 말이 달라진다. 실제 국내외에서 많은 팬을 거닐고 다니던 아이들 그룹 중 한 멤버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지금까지도 자숙을 하고 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행동을 잘못하면 전혀 의미가 없음을 알려 주는 예이다.

앞으로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행동, 인성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인성이 안 좋으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렇듯 외모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좋겠다.



내가 포샤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써 보세요.

김도율 (신송초6)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다. 이 책은 바사니오라는 기난한 귀족이 안토니오라는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는 이야기이다. 안토니오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저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자신을 희생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매우 잔인한 사람인 것 같다. 계약 중에 샤일록은 3000더커트를 내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벤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 바사니오는 바보 같다. 친구가 위험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 보증을 서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맺은 계약은 불공정하다. 안토니오는 3000더 커트를 빌리는 대신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자신의 살 1파운드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살을 베어내면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공정하지 않다.

만약 내가 판사라면 샤일록에게 살인미수죄와 사기죄를 적용해서 보석금을 내게 하거나 징역 1년형을 선고할 것이다. 샤일록이 제시한 거래는 돈을 핑계로 안토니오의 목숨을 없애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살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돈은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맞다. 돈에 사람의 목숨을 걸면 불공정계약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안토니오에게는 샤일록에게 빌린 돈을 이자 없이 모두 갚을 것을 명령할 것이다.



이상과 현실 중 더 중요한 것을 써 보세요.

김민건 (신정초6)

라만차 돈키호테는 라만차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시골 신사로, 기사도 책을 너무 감정이입하며 읽어서 책의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기사라는 환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념이 굳은 사람이다. 산초는 돈키호테와 같은 마을에 사는 농부이다. 산초는 순수하다. 하지만 돈이라면 눈이 빛나는 사람이다. 남을 돋는다는 풍계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만큼 돈을 원한다.

돈키호테는 정신병자처럼 보인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에피소드는 풍차 사건이다. 길을 가던 돈키호테가 갑자기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고 하며 공격한다. 이 이야기에서 'Throw the hat over the windmill.'이라는 표현도 생겨났다고 한다. 이 말의 뜻은 '미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땅바닥에 처박힌 돈키호테는 '이것은 마법사의 장난이었다'고 하며 풍차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돈키호테가 딱 봤도 소설에나 나올 법한 마법사나 거인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의 정신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멀쩡한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할 만큼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이상해 보였다.

돈키호테같이 너무 이상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 돈키호테처럼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을 군대로 착각하여 죽인 것이나 수도사들을 악의 병사로 착각하여 때려 다치게 했던 것과 같이 지나친 이상은 좋은 것 같지 않다. 오늘날에도 뉴스를 보면 현실과 게임 속을 혼동하여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돈키호테처럼 자신의 이상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사례이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당히 이상을 추구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상력을 키워 나갈 원동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의 중요성'을 주제로 감상을 쓰세요.

성주환 (명선초6)

톰은 홍역에 걸린 피터와 멀어지기 위해 이모 집으로 간다. 이모의 집에서 우연찮게 뒷문을 열었다가 신기한 정원과 맞닥뜨린다. 톰은 신세계를 본 뒤, 계속해서 탐험을 한다. 그러다가 해티를 만나고, 친구가 되어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이 정원은 현대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정원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현재에서의 하루는 정원에서 1주, 2주, 길면 계절이 바뀔 정도로 뒤죽박죽하다. 즉, 시간을 건너뛰는 타

임 슬립 현상이 일어난다. 톰은 그대로이지만 해티는 계속해서 자라는 것도 타임 슬립 때문이다.

톰과 해티가 만난 이유는 친구가 없던 둘의 처지가 같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친구가 생기길 간절히 바랐다. 톰은 이모네 집에 와서 아는 사람이 없었고, 바깥에 자유롭게 드나들지도 못했다. 톰은 자신의 힘이 되어 주며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해티 또한 가족없이 무서운 큰 어머니와 자신과 맞지 않는 사촌들만이 있었다. 그래서 해티 또한 자신과 함께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정원은 이 둘의 간절함을 이뤄 주었다.

친구는 없으면 안 될 존재이다. 친구가 없으면 내가 슬플 때 함께 공감해 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친구란 오래오래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태어난 의미가 없다. 또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외로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어야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톰과 해티처럼 친구를 간절히 원하면 언제나 친구는 생길 수 있다. 친구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노력을 했으면 한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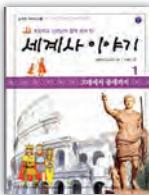
시민 혁명을 소개해 보고 느낀 점을 쓰세요.

태승민 (동명초6)

시민 혁명에는 독재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민 혁명은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시작한 명예혁명, 프랑스에서 열정적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 있다. 미국에서도 독립 혁명이 일어났다. 명예혁명은 1688년 의회가 군대를 이끌고 독재자 제임스 2세에 맞서 싸운 후 제임스 2세의 딸 메리를 왕위에 앉힌 사건이다.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 때 열린 회의에 시민들이 반발하여 일으킨 전쟁이며, 그 결과로 루이 16세는 처형당했다. 미국에서도 영국의 세금 요구에 분노한 개척자들이 보스턴 차 사건같이 여러 사건이 일어난 후 전쟁을 일으켰고, 마침내 미국이 독립을 했다.

시민 혁명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생각을 뿌리 깊게 심어 주었다. 시민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시민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 생각이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토대가 되었다. 또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최초로 일깨워 주었다.

시민 혁명은 시민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도와주는 밀거루가 되었다. 여기에 의리의 햇빛과 열정의 물을 더해서 지구촌 곳곳에 민주주의를 뿌리 깊게 박고 싹틔웠다. 우리는 시민 혁명의 중요성과 의리를 잘 기억하고 이를 계승해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 독재자가 나타나면 내가 직접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비록 독재자를 죽이진 못하겠지만, 그가 사퇴하거나 하야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기를 들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요?

송진우 (신송초6)

기원전 230년경, 진나라에 13살에 불과한 새 왕이 즉위했다. 이 왕은 중국 땅 전체를 통일하고 자신을 스스로 황제라고 말했다. 진시황제는 화폐를 통일하고 한 가지의 문자를 쓰도록 했다. 그리고 흉노족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만들었다. 그러나 불로장생을 위해 동쪽에 불로초를 가지 고 오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불로초를 찾지 못해 50세의 나이로 죽었다.

진시황제는 중국 최초로 통일된 나라를 세웠고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았다. 만리장성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그리고 화폐와 문자, 도량형을 통일하여 당시 중국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 주었다. 거대한 무덤도 만들었는데, 이때 만든 진시황릉은 오늘날 세계 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말년에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가져 오라는 무리한 명령을 시키고 지나친 공사로 사람들을 괴롭혀 지금은 나쁜 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진시황제는 아주 나쁜 왕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다. 특히 백성들을 지나치게 괴롭혀서, 당시에도 폭군이라는 평가까지 얻었다. 이때 받은 평가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나도 이에 동의한다.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진시황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말해도 된다고 하거나 한 번쯤은 나의 이야기를 말했을 것 같은데, 고바야시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선생님을 만난 토토가 매우 부러웠다.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던 고바야시 선생님은 이후로도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고민했다. 나에게 그 모습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다. 특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위해 운동회에 그 친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즐길 수 있는 종목을 고민해낸 것이 가장 본받고 싶었다. 나 같으면 '운동회에서 학생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아무런 준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종목 하나하나를 아이들의 특성과 맞춘 것으로 바꾸어 아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래서 나는 고바야시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바야시 선생님처럼 악자들을 배려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남자들이 임산부석에 거리낌 없이 앉는다거나 건강한 사람들이 노약자석에 앉는 경우가 많다. 고바야시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특징을 잘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이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본받아 우리가 사회적 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한다.



'친구의 중요성'을 주제로 감상을 써 보세요.

이나린 (연송초6)



토토와 도모에 학원을 중심으로 감상을 써 보세요.

김태영 (박문초6)

토토는 예전 학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 예를 들어 책상 뚜껑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고, 친동야 아저씨를 기다리기 위해 계속 창문에 서 있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등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토토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근데 이것은 토토의 성격 그 자체인 것인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장난을 잘 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사물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놀이에 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토토는 이상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깊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4시간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주위를 잘 관찰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로 간추려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토토는 천재인 것 같다.

토토가 새롭게 다니게 된 도모에 학원의 교장인 고바야시 선생님은 참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았다. 그는 4시간 동안 자신의 얘기를 말하지 않고 오로지 토토의 이야기만 계속 들어주고 호응하였다. 나라면 중간에 그만

톰은 동생 피터가 홍역에 걸리자, 홍역에 옮지 않도록 잠시 동안 이모네 집에서 지내게 된다. 이모네 집 뒤에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정원은 현실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다. 정원에는 해티라는 아이가 살고 있는데, 현대에 살고 있는 톰과 달리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살고 있다. 현실에서 하루가 지나는 동안 정원에서는 몇 주일, 또는 몇 년 등이 흘러간다. 정원의 모습은 해티가 그리워하는 시간을 보여 주기 때문에 시간이 현실과 달랐던 것이다.

몇십 년 차이가 나는 시대에 사는 톰과 해티가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톰은 피터를 피해 이모 집에 있지만 같이 놀 사람이 없고, 해티는 큰엄마의 미움을 받는 처지인데다 사촌들과도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 그래서 둘은 원하던 것이 같았다. 바로 함께 놀 사람, 친구였다. 이들의 소원은 이루어져, 서로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정을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친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 친구가 있으면 톰과 해티처럼 함께 지내고, 함께 놀 수 있고, 서로의 걱정거리를 들어줄 수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친구가 없으면 걱정거리를 털어 놓을 사람이 없어 계속 쌓아 두기만 하여 걱정거리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심심하고, 외로울 것 같다. 만약 내가 톰이라면, 이모네 집에서 몰래 가출하여 엄마, 아빠, 가족이 있는 집에 갈 것이다. 톰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정말 견뎌내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친구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

리딩엠 학생 수상자 현황

- 초등학생 수상자 -

이름	학교	학년	대회명	수상내용	이름	학교	학년	대회명	수상내용
이은준	신정초	1학년	교내 창의 응답 교육 소감문 쓰기 대회	우수상	이현서	대도초	4학년	제23회 전국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선
강대호	신정초	2학년	현장체험학습 소감문 쓰기 대회	우수상	이다솜	도곡초	4학년	제18회 신림문화 작품 공모전	입선
권우진	신정초	2학년	현장체험학습 소감문 쓰기 대회	우수상	성민경	대도초	4학년	제18회 신림문화 작품 공모전	입선
김채은	대치초	2학년	강남도서관 독후감 대회	장려상	김리부	대도초	4학년	제19회 신림문화 작품 공모전	입선
노유진	대치초	2학년	강남도서관 독후감 대회	장려상	김선율	청라초	5학년	굿네이버스 편지 쓰기 대회	본부장상
노유진	대치초	2학년	교내 '친구 사랑 글짓기'	최우수상	안슬	서강초	5학년	교내 독서 논술대회	장려상
허윤아	대치초	2학년	교내 '친구 사랑 글짓기'	최우수상	안슬	서강초	5학년	교내 과학토론대회	웅수상
김서연	원명초	2학년	제18회 강남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윤석환	박문초	5학년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	우수상
원정연	한양초	2학년	2018 강남도서관 초등학생 독서 감상문 대회	장려상	제시윤	위례초	5학년	제23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독서감상문대회	장려상
김세라	청라초	2학년	굿네이버스 편지 쓰기 대회	본부장상	김준섭	위례푸른초	5학년	제23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독서감상문대회	대상
박태황	송례초	3학년	제19회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기념사업회 글짓기 대회	우수상	이승빈	위례한빛초	5학년	제18회 신림문화 작품공모전 신림조합중앙회장상	입선
구선우	박문초	3학년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	장려상	김태영	박문초	6학년	독서후활동대회	장려상
김예원	대도초	3학년	제18회 신림문화 작품 공모전	장려상	홍서연	해원초	6학년	양성평등 민화 그리기 대회	우수상
오승현	대도초	3학년	제18회 강남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임채연	청람초	6학년	양성평등 글짓기 대상	장려상
김예은	대치초	3학년	교내 '친구 사랑 글짓기'	최우수상	서예나	신서초	6학년	교내 과학글짓기 대회	은상
문정민	경명초	3학년	굿네이버스 편지 쓰기 대회	회장상	성주환	명선초	6학년	독서 활동 글쓰기 대회	우수상
윤정민	대치초	3학년	교내 '친구 사랑 글짓기'	최우수상	송진우	신승초	6학년	효행 실천 보고서 쓰기 대회	최우수상
이서영	박문초	3학년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	최우수상	심주영	신정초	6학년	교내 독서 미미당대회(독서논술대회부문)	최우수상
최현서	위례초	3학년	제23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독서감상문대회	우수상	윤준상	위례초	6학년	제18회 신림문화 작품공모전 신림조합중앙회장상	장려상
김주원	세명초	4학년	제18회 신림문화 작품공모전 신림조합중앙회장상	입선	김아인	푸른초	6학년	제18회 신림문화 작품공모전 신림조합중앙회장상	입선

- 중·고등학생 수상자 -

이름	학교	학년	대회명	수상내용	이름	학교	학년	대회명	수상내용
강태린	위례중	1학년	교내 통일편지글쓰기 대회 장려상	3위	박수진	청라중	1학년	교내 독서퀴즈 대회	장려상
김예원	와부중	1학년	양성평등글짓기 대회	장부려상	박소현	목동중	1학년	2018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금상
나다연	와부중	1학년	학교폭력예방 글쓰기 대회	장려상	정유경	가현중	2학년	교내 통일 문예 대회	장려상
이시호	와부중	1학년	꿈 발표 대회	최우수상	이정윤	목일중	2학년	교내 환경글짓기 대회	최우수상
이시호	와부중	1학년	스마트폰 이별주간 소감문 쓰기 대회	우수상	부서현	목일중	2학년	교내 과학토론대회	금상
이시호	와부중	1학년	학교폭력예방 글쓰기 대회	장려상	김동혁	목동중	2학년	교내 독서감상문대회	장려상
이시호	와부중	1학년	평화글든벨 대회	최우수상	양대원	금오중	2학년	교내 과학토론대회	동상
정윤서	와부중	1학년	진로활동 소감문 대회	우수상	엄민주	목일중	3학년	양천구 청소년 문학과 표현 공모전	장려상
황서영	예봉중	1학년	나의 꿈 발표대회	장려상	정정연	신목고	1학년	강남독후감 공모전	차하
윤지원	청람중	1학년	인천 중·고등학생 민주시민 토론 발표대회	우수상	김유진	공항고	1학년	지역 사랑 스피치 대회	우수상
최호현	청라중	1학년	교내 독서퀴즈 대회	우수상	오윤주	여의도여고	1학년	교내 과학 독서감상문 대회	우수상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엠에서 중고등 학생들이 수업도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 후 특정 주제 또는 논제에 대해 쓴 글들입니다.



토종닭의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을 쓰세요.



이 책의 주인공인 토종닭은 중국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암탉으로 오해를 받는 바람에 다른 수탉들과는 달리 안전하게 살아남는다. 어느 날, 토종닭은 자신에게 다른 닭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능력은 바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토종닭은 이 능력을 이용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며, 다른 동물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이것이 토종닭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다.

토종닭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성장해 갔다. 토종닭의 여러 모습 중 빌가락이 세 개밖에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세발 가락을 도와준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 반에 있는 장애가 있는 한 친구와 그 친구를 바라봤던 나의 시선이 떠올라서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또래상담자라는 중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친구와 어울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아이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하지만 토종닭의 용기를 보고 그런 두려움을 덜어내고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토종닭이 장애를 갖고 있는 닭을 도운 것을 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보다 약하거나 힘든 사람을 돋는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못살고 힘든 사람을 돋기보다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모른 체하는 행동을 더 쉽게 한다. 그 이유는 아마 다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손 내밀어 도와주기 두려워서, 내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다른 이를 돋고 걱정해 주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이제는 토종닭이 본인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발가락을 도운 것을 본받아 적극적으로 남을 돋고, 직접 돋기 어렵다면 따뜻한 응원을 해 주어야 한다.



책을 읽고 느낀 감상을 중심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 보세요.

박성언 (예송중1)

'아빠 찰리가 그러는데요'라는 책은 아빠와 아들이 사회의 문제점을 비

판하는 대화를 나누는 책이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中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우리 편 다른 편'



이라는 에피소드였다. 왜냐하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나도 그 일을 했다는 듯이 '우리'라고 말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대로 나는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쟤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크게 다가와서 다른 에피소드보다 더 인상 깊었다.

이 에피소드 안에 내재된 사회적 문제는, 세상에는 이 주인공의 아빠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반 친구가 그런 예 중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듣기평가를 할 때 자신이 문제를 모르거나 들지 못하였을 때는 선생님께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 한번 더 들려달라고 하고, 자신이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기는 다했으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고 부추긴다. 또 다른 예로는 따돌림을 방관하는 사람들을 들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그저 방관만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들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의 해결 방법으로는 나쁜 일이 생겨도 '쟤네가 아닌 '우리'라고 여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나쁜 일에도 '우리'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타적으로 행동할수록 사람들 간에 따뜻한 마음이 오고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서연 (신정중1)

요즈음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다. 나라면 일을 시켜준 것이 고마워 웃음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을까?

이 책을 읽고 왜 그 청소년들의 얼굴이 밝지 않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책에서의 청소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욕설과 폭언을 듣는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일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것에서 해고되면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 쉽게 신고를 하지도 못한다고 한다. 이 책은 2011년에 나왔지만 7년 후인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청소년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까닭은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 오른들은 청소년에게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고 심한 경우엔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청소년이 어른에게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청소년이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면 부당한 대우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내가 일을 한다면 일단, 부모님에게 하락을 받고 함께 근로계약서를 써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일단 시장님과 대화를 해 보고,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감히 일을 떠려치우고 그것에 절대 가지 않으며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만약 내게 욕설, 폭언들을 한다면 그것을 높음 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청소년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어른이 될 것이다.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정승현 (예송중1)

화연이는 천지를 심하게 괴롭혔다. 괴롭힌 것 중에 가장 심했던 것은 생일 파티에서 괴롭힌 것이다. 다른 아이들한테는 2시에 생일 파티를한다고 했는데 천지에게는 3시에 한다고 했다. 생일 파티에 온 아이들에게는 천지 아빠가 교통사고가 아닌 자살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화연이의 행동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도 괴롭힐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 괴롭힘을 참는 천지가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천지였다면 화연이를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다.

나는 실제로 괴롭힘을 당한 아이를 본 적은 없지만 동영상으로는 많이 봤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신고를 못했다고 한 것이 이해가 갔고, 도대체 그 아이의 담임을 맡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왜 관심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바빠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학교에서 그 아이를 자주 보는 선생님들은 알아차렸을 텐데 왜 기민히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용기이다. 괴롭힘을 당하면 기민히 있지 말고 용기 내어 경찰, 선생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 부모님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일찍 알리는 것이 나중에 자살을

해서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학교 선생님들도 좀 더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보고만 있지 말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천지의 아픔에 공감하며 감상을 써보세요.

박서원 (함박중1)

천지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하지만 그들의 다돌림을 받을 때도 살아남으려 애썼다. 남들과 달리 보이려 하고,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외로워 했으며 우울증을 앓았다. 그럼에도 천지는 가족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한다. 천지는 친구와 가족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천지는 학교에서 화연이에게 간접적으로 따돌림을 당해 왔다. 화연은 천지의 뒤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혐담을 하고, 친구들이 있을 때는 천지 앞에서 김싸주는 듯이 착한 척을 하며 따돌렸다. 천지는 그런 화연이 정말로 입고 괴로운 존재였을 것이다. 차라리 화연이 대놓고 따돌렸다면 대응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연에게 회를 내면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 화연이와의 관계가 힘들고 답답했을 것이다.

천지는 가족들에게 치지를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일까? 천지의 가족과 천지의 성격의 차이점에서 알 수 있다. 만지와 엄마는 털털하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쉽게 생각해 무심해 보인다. 반면 천지는 꿈꼼하고 세심해 속이 깊은 성격이다. 항상 진지하고 무거운 천지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돌려 해도 털털한 엄마와 만지는 그러려니 하고 흘려 들었다. 그렇기에 천지는 가족에게 말을 해봤자 별 도움이 없을 것을 알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천자는 따돌림으로 괴로워 하지만 마지막으로 움을 청할 길이 없어 혼자서 외롭게 자살을 했다. 주변에서 천지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과 말에 귀기울여 주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보며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공감하는 마음과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지 생각해본다.



진정한 세계화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상을 쓰세요.

박찬웅 (신정중1)

이 책은 한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며 진정한 세계화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한비야는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에서 활동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 책을 보고 진정한 세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진국은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어떤 나라는 분쟁이 끊이질 않으며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호활동을 하는 장면을 보며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 술한 내전을 겪으며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그 중에서도 유각촌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그곳에 있게 되면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다. 아프리카 국경을 넘나드는 군인이나 노동자들의 성매매로 인해 점점 퍼지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유각촌에서 매일 몇 시간 동안 일을 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이다. 나는 에이즈가 청결하지 못해 걸리는 병인 줄 알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가난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로, 아프간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억에 남았다. 아프간은 내전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그래서 산간지역 끝자락에 사는 주민들은 더욱 심하게 고통 받고 있다. 영양실조를 더 심하게 앓고 있으며 한비야가 속한 단체가 찾아가 치료급식을 했다. 하지만 치료급식의 양은 제한이 있어 모두를 살리기엔 부족했다. 아이 한 명을 살릴 때 옆 지역 아이는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주민을 다 구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구호활동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다.

세계화로 모든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는 그렇지 않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빙곤한 나라

를 먼저 나서서 도와야 한다. 내전을 중단하거나 음식을 주어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세계화는 모두 힘을 합쳐 도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탉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쓰세요.

신용원 (신정중1)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리더가 한 명씩 꼭 있다. 학교 반에서는 반장이 꼭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반 친구들의 단합심이 생기고 친구들이 우유부단할 때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에서도 리더가 있어야 한다. 우리집의 리더는 아빠이다. 아빠가 리더로서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앞장서신다. 이처럼 공동체에는 리더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좋은 리더란 무엇일까? 주인공 수탉의 모습에서 좋은 리더의 자질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주인공 수탉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라이벌인 친구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있지만 라이벌이기에 앞서 친구이기 때문에 살려주었다. 주인이 버린 담배꽁초를 얼른 주워 불로 밧줄을 지진 다음 하얀 깃털이 도망갈 수 있게 했다. 배려심 있는 리더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다독일 줄 알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최대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해 노력할 줄 안다. 이런 리더가 있는 공동체에는 따뜻한 이해심이 있고,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인공 수탉에게서 '책임감'도 느꼈다. 옆집 줄무늬 수탉과도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맞섰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책임감이 있는 리더가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구성원들도 리더를 믿고 같이 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심과 책임감을 갖춘 리더를 꼭 뽑아야 한다.

절친여고생 정윤*회정 이의 독서기록

같은 책 다른 생각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생각'을 담은 두 절친의 독서기록

[같은 책 다른 생각]은 3년 동안 인문, 과학, 사회,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눠온 절친 여고생 저자들의 특별 뷔는 시각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중 한 명은 이과를, 한 명은 사회과학 계열을 지망하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두 저자들의 독서 감상문 속에는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관점의 생각이 담겨 있다.

비판적인 시선, 인문학적 상상력, 저자의 생활이 녹아든 생각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책 원 기 의 글 쓰 기

리딩엠

언론이 극찬하고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책!!

14년 05월
2쇄 발행

“너무 바쁜 우리 아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맞이하는 독서 정체기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초등학교 때와 너무 다른 분위기, 아직 어색한 교복, 매 시간마다 바뀌는 선생님, 서먹서먹한 친구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수업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교과서부터 다르죠. 초등학교 때보다 더욱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학습량이며 다녀야 할 학원까지 늘어나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아이들의 독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학원 숙제 때문에 잠자는 시간마저 줄이고 있으니 당연히 손에 책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책을 잡아도 제대로 읽지 않고 대충 헤아보거나, 중간에 포기하곤 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려 독서 자체가 난제인 중학생들의 현실. 이 시기가 바로 책 한 권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른바 '독서 정체기'가 아닌가 싶네요.



'독서 정체기'를 어떻게 이겨 내야 할까요?

먼저, 아이의 일과 중 책을 읽을 시간을 따로 확보해 두세요. 쉬는 시간 틈틈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학원 스케줄처럼 독서 시간도 딱 정해 두세요. 마음 놓고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도 더욱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궁금해 하고 질문합니다. 너에게 좋은 책이니 읽으라는 강제적인 권유는



오히려 아이가 책과 더욱 멀어지게 되는 방법이에요. 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진로도서, 청소년 시기의 고민에 공감할 수 있는 성장소설, 교과 공부에 필요한 도서를 적절히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울러 꾸준한 독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교육과정에 대비하고, 나아가 우리 아이가 미래를 탄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읽고 싶은 책을 설정하고, 차근차근 읽어나가며 기록해 나간다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될 거에요.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초등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독서의 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내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을 잘 이해하는 이해력, 그것을 짜임새 있게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사고력,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창의력을 시험, 수행평가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지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가 손에서 책을 놓아 버리는 것을 방지하면, 아이가 이러한 능력을 갖출 시간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시기이지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직·간접 경험을 하고 시야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빠놓을 수 없는 것이 독서라는 점.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감하시겠지요? 우리 아이의 생각을 쑥쑥 자라게 하는 힘, 바로 독서에서 비롯됩니다. 아이가 손에 책을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따뜻하게 지켜보고 응원해 주세요.

리딩엠은

‘책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과 ‘책읽기와 글쓰기로 올바른 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소통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원, 바로 리딩엠의 정체성입니다.

2018년

- ▶ 2018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
(초중고 독서활동 부문) 3년 연속 수상
- ▶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 리딩엠 남양주 덕소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내포 신도시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경단 원당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청주 상당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안동 옥동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영종 중산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서초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송파 신천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원주 교육센터 오픈

2017년

- ▶ 2017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
(초중고 독서활동 부문) 2년 연속 수상
- ▶ 리딩엠 대치 직영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잠실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위례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청라 교육센터 오픈

2016년

- ▶ 리딩엠 <독서 활동 매니지먼트 지도교사 양성과정> 제1기 수료
- ▶ 2016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
(어린이·청소년 독서활동 부문) 수상
- ▶ 리딩엠 송도 교육센터 오픈
- ▶ 리딩엠 분당 교육센터 오픈

2015년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자 선정
‘독서활동매니지먼트지도사자격증 1급, 2급’
- ▶ YTN 사이언스 청년창업 RUNWAY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리딩엠 편’ 방송

2014년

-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기업 협약서 체결
- ▶ (주)리딩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 ▶ 월간 경제인 ‘독서교육의 패러다임 제시하는에듀 컴퍼니 (주)리딩엠’ 보도

2013년

- ▶ 소상공인진흥원 프랜차이즈 브랜드 디자인 R&D 지원 대상사업자 선정
- ▶ (KIBO/한국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제20130105499호) 획득
-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독서활동연구소 인정증서 획득
- ▶ KBS1 이규봉, 이지연 아나운서의 <라디오 전국일주>
성공사업장 리딩엠 소개

2012년

- ▶ <독서이력진단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등록
- ▶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2011년

- ▶ 한국경제 TV [아이디어발전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는다
- ▶ 중소기업청 ‘이노베이션 스토어’선정
- ▶ EBS 부모60분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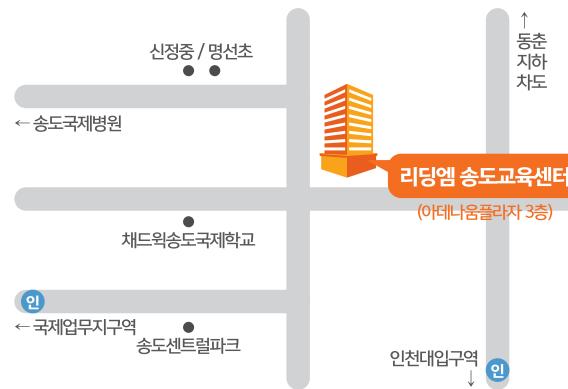
2010년

- ▶ 중소기업청 <신사업아이디어 모델 개발 대상업체>선정

2009년

-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프로젝트 우수 아이템 선정

리딩엠 송도 교육센터 오시는 길



리딩엠 전국 교육센터

서울	대치교육센터 ☎ 02-508-5537
	도곡교육센터 ☎ 02-573-2161
	목동교육센터 ☎ 02-2646-8828
	잠실교육센터 ☎ 02-425-4070
	서초교육센터 ☎ 02-537-2248
	신천교육센터 ☎ 02-422-8756
인천	송도교육센터 ☎ 032-833-3331
	청라교육센터 ☎ 032-563-0383
	원당교육센터 ☎ 032-569-4984
	중산교육센터 ☎ 032-752-1236
경기	위례교육센터 ☎ 031-756-0802
	덕소교육센터 ☎ 031-577-8822
강원	원주교육센터 ☎ 033-766-8773
대전	둔산교육센터 ☎ 042-488-1399
충청	내포교육센터 ☎ 041-633-5239
	상당교육센터 ☎ 043-293-3378

발행처 | (주)리딩엠
책 읽 기 와 글 쓰 기
책임 | 정연하 디렉터 | 김지은, 이현미, 이지은, 김현아
[리딩엠 송도교육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64 아데나움플라자 305호 | TEL : 032-833-8331

www.readingm.com